

한글

한 권으로 끝내기

국어 영역 화법/작문/문법편

정답과 해설

I 화법

기출로 개념 익히기 (1) 정보 전달

본문 010~013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⑤ 05 ②

01 말하기 계획

발표자는 2문단에서 정선이 그린 산수화의 특징을 언급한 후, “관동팔경”의 산수화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죠.”라고 하며 “관동팔경”의 주요 작품들을 시각 자료(화면)로 제시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이는 청중이 발표의 대상이자 주제인 “정선의 산수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5문단에서는 정선의 산수화가 지닌 특징이 잘 드러나는 <충석정>, <삼일포>, <낙산사>를 화면을 통해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시각 자료로 정선의 산수화 작품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참고한 서적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환’에 관한 산수화 연구가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참고 서적은 아니다.
- ③ 발표의 마무리 부분에서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지만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 ④ 발표자는 발표 시작 시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밝히고 있지만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시각 자료는 활용하지 않았다.
- ⑤ 정선의 개별 작품들을 사례로 제시하여 정선의 산수화가 지닌 특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산수화의 발전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정선의 산수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시각 자료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02 담화 과정과 내용 파악

발표자는 정선이 <삼일포>에서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충석정>에서 ‘수직으로 죽죽 내려 굽는 수직준법’을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삼일포>에서 수직준법을 사용하였다고 메모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발표자는 2문단에서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환’이라고 하며, ‘정선의 산수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 ② 발표자는 4문단에서 ‘정선의 산수화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점경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라고 하며, 점경 인물은 ‘주로 명승지를 여행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로 표현됩니다.’라고 하고 있다.
- ③ 발표자는 3문단에서 <충석정>을 화면으로 보여 주며 정선이 ‘돌기둥 위에 있었던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둥을 더욱 부각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 ⑤ 발표자는 5문단에서 <낙산사>를 화면으로 보여 주며 ‘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들로 이 그림 속의 점경 인물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03 듣기·말하기 전략

3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강연자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발표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강연자의 말을 뒷받

침하는데, 이렇게 섭취량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은 나트륨이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나트륨의 표시 위치가 위로 올라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 오답 풀이** ① 강연자가 강연 중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강연자가 강연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강연자가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강연자는 강연의 시작 부분에서 ‘2018년부터는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알고 있나요?’라며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중이 강연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4 담화의 수용 및 평가

2문단에서 강연자는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인 점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당류’는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며, 강연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당류’가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영양 성분의 함량 표시 기준을 ‘회 제공량’에서 ‘총 내용량(㉠)’으로 개정한 이유가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② 3문단에서 영양 성분 표시 순서의 변화를 설명하며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 ③ 3문단에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순서를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며 그 예로 ‘나트륨(㉢)’ 표시 위치가 개정 전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④ 4문단에서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05 담화의 수용 및 평가

2문단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라며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꾼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미 강연에서 말한 내용을 추가 설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강연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②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부 가공 식품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③ 2문단에서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이라고 하고 있을 뿐, 비타민이나 칼슘 등이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④ 2문단에서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⑤ 3문단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하고 있을 뿐, 권고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01 ⑤ 02 ② 03 ① 04 ⑤ 05 ⑤ 06 ④ 07 ④
08 ④ 09 ⑤ 10 ⑤ 11 ③ 12 ④

01 말하기 계획

연설 의뢰서에 청중인 투표단은 대부분 사이클 선수 출신으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연설자는 연설의 3문단에서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A시의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점과 함께 선수로 출전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이 연설에서는 A시의 도로 경기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사이클 전용 경기장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⑤의 계획은 이 연설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연설자는 사이클 대회 개최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대회 취지의 부합성, 대회 개최 여건, 대회 운영 능력 측면에서 밝혀 청중을 설득하고 있다.

② 연설자는 2문단에서 대회의 취지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데 있다는 점을 밝히며,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A시가 오히려 사이클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연설자는 6문단에서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사이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으로써 사이클 선수 출신인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④ 연설자는 3문단에서 선수로 출전해 본 경험을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하며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02 듣기·말하기 전략

연설자는 2문단에서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A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려는 세계 □□ 사이클 대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대회 취지 부합성 측면에서 볼 때 '약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연설자는 이런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회 취지 부합성과 관련하여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장점으로 부각하여 청중의 인식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연설자는 대회의 취지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 대회 개최가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는 않고 있다.

③ '경기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정적 시각을 차단한다.'라는 선지의 내용은 강점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한 것이다.

④ 연설자는 개최지 선정에 불공평성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회 개최 여건과도 관련이 없다.

⑤ 연설자는 A시가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 자료를 인용하여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03 담화의 수용 및 평가

연설자는 3문단에서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밝혀 A시가 대회 개최지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연설자는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①은 적절한 반박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연설자는 4문단에서 A시가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③ 연설자는 3문단에서 대회 개최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④ 연설자가 5문단에서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을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를 위한 A시의 노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가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청중의 반응은 이 연설을 반박한 내용이 아니라, 옹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연설자는 2문단에서 A시가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라는 점을 언급했을 뿐,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연설자는 사이클에 대한 A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04 담화 과정과 내용 파악

토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연설의 마무리 부분에서 활용할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학생 2가 '연설 마지막엔 친구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자.'라고 하며 연설을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 지을 것인지를 제안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언에서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며 청중이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제각각인 친구들'임을 언급하고 있다.

② 학생 1은 첫 번째 발언에서 '연설을 할 장소'를 감안해야 한다고 하며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임을 언급하고 있다.

③ 사회자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에 대해 논의해 보자.'라고 한 말에 따라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 근거의 제시 순서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④ 토의 내용은 크게 '청중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 및 활용 자료'에 관한 것이므로 토의에서는 연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담화 과정과 내용 파악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3이 청중의 경각심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학생 2가 제안한 근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연설을 시작할 때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하여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자는 학생 3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인기 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자는 학생 1의 제안에 이미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 쓴 방법이라 더 이상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자는 학생 2의 제안에 연설 주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④ 학생 2는 '피해자의 고통을 핵심 근거로 들어야' 한다는 학생 1의 제안에 핵심 근거로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동의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06 말하기 계획

학생 1이 '지금까지 제안된 근거와 자료는 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니 모두 채택하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앞서 제시된 근거들이 모두 합의된 토의 내용(㉔)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는 학생들의 토의 과정에서 근거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이를 연설 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학생 2는 '사이버 언어폭력은 처벌받게 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자 하며 관련 법 조항을 자료로 제시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② 학생 3은 '연설을 시작할 때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학생 1과 학생 2가 동의하여 이는 연설 시작 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있다.

③ 학생 1은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핵심 근거로 들고자 하며 피해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 자료를 보여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⑤ 학생 3은 '누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자 하며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07 듣기·말하기 전략

'반대 1'은 반대 측 입론에서 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며 기존의 심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기존의 심사 방식이 평가 기준의 타당성이 높고, 계획서의 제출 기회가 공평하며, 계획서 준비 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반대 1'은 기존의 심사 방식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내세우며 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이 이 토론에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찬성 1'은 찬성 측 입론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하는 방식이 심사 방식(기존 방식)에서 추천 방식(새로운 방식)으로 바뀔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③ '반대 1'은 반대 측 입론에서 심사 방식(기존 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므로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⑤ '반대 1'은 입론에서 추천 방식(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반대하며 심사 방식(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열거하고 있으나, 추천 방식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08 듣기·말하기 전략

[B]는 반대 측 입론에 대한 찬성 측의 반대 신문으로, '작년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존의 심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찬성 1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와 같이 반대 1이 앞서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한 후, 평가 기준 중의 일부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런 점에서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라고 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는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이다. [A]에서 반대 2는 찬성 1이 주장한 추천 방식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다른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② [A]에서 반대 2는 '추천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와 같이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기존 방식(심사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은 제기하지 않고 있다. [A]에서 반대 2는 새로운 방식(추천 방식)으로 바꾸었을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③ [B]에서 찬성 1은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한 반대 1의 진술에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반대 1에게 근거의 출처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⑤ [A]와 [B]에서 양측은 상대측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측의 논지를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토론에서 양측 모두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지 않았기에 [A]와 [B]에서는 그에 대한 사실 관계 또한 확인하지 않고 있다.

09 담화 과정과 내용 파악

토론에서 찬성 측은 현상을 바꾸고자 하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반대 측은 새로운 방식인 추천 방식(㉔)을 반대하고, 기존의 심사 방식(㉕)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추천 방식(㉔)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므로 추천 방식(㉔)이 심사 방식(㉕)보다 더 공평하다는 주장은 반대 측이 아니라 찬성 측의 주장이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찬성 측 입론에서, 심사 방식은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지만 추천 방식은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다고 하며 추천 방식(㉔)이 적합한 방식임을 주장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찬성 측 입론에서, 심사 방식은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드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추천 방식으로 바꾸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며 추천 방식(㉔)이 적합함을 주장하고 있다.

③ '반대 2'는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추천 방식으로 바꾸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다고 하며 심사 방식(㉕)을 옹호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반대 측 입론에서,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고 하며 심사 방식(㉕)을 지지하고 있다.

10 듣기·말하기 전략

A와 B가 지난 협상에서 합의한 사안은 ○○군에서 기획한 전국적 규모의 축제를 두 마을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후속 협상에서는 축제 공동 개최라는 합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세부 내용(축제 공식 명칭에 대한 논의와 행사 배분 및 행사 선택 순서)을 조율하고 있으므로,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사안이 수정되었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는 협상을 시작하며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축제 공식 명칭'을 논의할 문제로 제안하고 있다.

② A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B 마을은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며 협상 전에 알아본 B 마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③ B는 A가 행사 배분 비율을 50%로 하자는 제안을 하자, '차라리 저희 마을이 유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협상 결렬 의사를 내비친다. 이에 A는 '그 대신에 B마을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요?'라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B는 행사 배분 비율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A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행사 배분은 동일하게 50%씩 하고, 행사 선택은 하나씩 교대로 하되, A마을부터 선택을 시작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11 듣기·말하기 전략

A는 '공동 개최와 관련해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B 마을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는 B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자의 축제 유치 의도를 고려하여 축제 명칭을 정하자고 제안하며 B가 이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A는 'B 마을 특산품을 캐릭터로 만들면서 행사를 60%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B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을 지적하고, 행사 배분 비율을 50%씩 하자고 제안하며 이에 대한 B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A는 '지난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같은 ○○군 마을끼리 온당치 않습니다.'라고 하며 B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B 마을이 원하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A는 협상 결렬의 의사를 보이는 B에게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제 타결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부분은 이 협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② A가 연쇄적인 질문을 한 부분이나 갈등 상황의 원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이 협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④ A는 축제 유치를 통해 자신의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일차적 목표임을 밝히며 B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 ⑤ A가 '단독 개최를 하더라도'에서 가정적 진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동 개최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B에게 재고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12 담화 과정과 내용 파악

협상 과정에서 A는 축제 유치를 통해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밝히고 있으며, B는 A가 말한 대로 '경제적 이득'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B는 행사 선택권을 선점하여 수익성 높은 행사를 가져가는 것으로 경제적 이득 증대라는 목표를, A는 축제 명칭에 자신의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하는 것으로 마을의 인지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여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B는 '개최지로 저희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습니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A는 'B 마을도 공동 개최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것 아닙니까?'라며 각자의 이익을 위해 공동 개최가 결정되었다고 대응하고 있다.
- ② B는 행사 배분 비율은 50% 원칙으로 하자는 A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A는 축제 명칭에 자신의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할 것을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있다.
- ③ 행사 선택의 순서는 B가 먼저 제안한 것을 A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A가 행사 선택의 순서에서 최초의 입장을 양보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가 자신의 마을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로 만들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A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B가 양보했다고 볼 수 없다.
- ⑤ A가 바라는 것은 축제 홍보가 아니라 마을 인지도 향상이며, B가 바라는 것은 마을의 화합 증진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 증대이다.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④ 06 ②

01 듣기·말하기 전략

㉠에서 지호는 승우와 공통된 경험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특강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에서 지호는 특강에서 들은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승우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지도 않다.

- 오답 풀이** ① ㉠에서 지호는 승우에게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지를 직접 묻고 있다.
- ② ㉡에서 지호는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는 승우의 말을 단서로 하여 승우의 경험이 '특강에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와 관련되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있다.
- ③ ㉢에서 지호는 반장의 말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승우가 학습제 준비로 바빠 할 일이 많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추측하고 있다.
- ④ ㉣에서 지호는 '내가 작년에 학습제 준비를 해 봐서 아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라고 하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승우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02 담화 내용 생성

〈보기〉의 사례에는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는데 경회루가 '한 시적으로 개방'되고,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강사가 특강에서 말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중 '희소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대화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희소성의 원리를 빠르게 설명한 ③이 적절한 대답이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사례에서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는데'라고 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관심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보기〉의 사례에서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던 차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다수가 보이는 경향을 따라하려는 심리를 보여 주는 사례로도 적절하지 않다.
- ④ 〈보기〉의 사례에 특별 관람 사전 예약제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통된 경험을 하기 위해 관람을 결심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 예약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경회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소식에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희소성의 원리와 관련되므로,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듣기·말하기 전략

면접 대상자는 자기소개서 3문단에서 「상당 심리학의 기초」란 책에 소개된 여러 이론 중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을 흥미롭게 읽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B]에서 면접자는 이러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는 ㉔의 내용과 연결된다. 또한 면접 대상자는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의 내용을 언급하며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㉔의 내용과 연결된다.

오답 풀이 [A]: 면접자는 '또래 상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이는 ㉔의 '지원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답할 것을 요구하는군.'과 연결된다. 또한 면접 대상자는 (가)의 자기소개서에 언급하지 않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㉔의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답변해야겠군.'과 연결된다. [C]: 면접자는 또래 상담과 관련한 상담 상황을 제시하며 '이 경우에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이는 ㉔의 '지원 분야와 관련한 상황을 제시하며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군.'과 연결된다. 또한 면접 대상자는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상호 간의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 '또래 친구들의 고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를 바탕으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㉔의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여 답변해야겠군.'과 연결된다.

04 듣기·말하기 전략

(나)에서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뿐, 면접자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면접자가 '레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냐고 질문하자 면접 대상자는 '레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되물으며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③ 면접자는 '평소 또래 상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군요', '잘 알고 있네요.'라고 하며 면접 대상자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④ 면접자는 '신뢰와 친근감을 뜻하는 레포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군요.'라고 하며 면접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요약 및 재진술하고 있다.
 ⑤ 면접자는 면접의 도입부에서 '긴장한 것 같은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면 됩니다.'라고 하며 면접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 주는 말을 하고 있다.

05 듣기·말하기 전략

[D]에서 해설사는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진행자는 자신이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것이 해설사가 설명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진행자는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라고 하며 대담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② [B]에서는 해설사가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묻은 것이 아니라, 진행자가 해설사에게 남한산성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이야기하며 남한산성과 관련된 설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해설사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C]에서 해설사는 『택리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진행자의 말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며 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한 것이다.
 ⑤ [E]에서 진행자는 청취자에게 대담의 중요 내용과 관련된 체험을 권유하며,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해설사의 말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06 담화 내용 생성

<보기>는 학생 1과 학생 2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답사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려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학생 2의 말에 따르면 포스터의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하여 표현해야 하고, 답사 목적에는 대담의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한다. ②의 '남한산성이 들려주는'은 의인법을 활용한 제목(㉑)이고,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는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을 잘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대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답사 목적(㉒)이다.

오답 풀이 ① ㉑은 의인법이 아닌 은유법이 활용되고 있고, ㉒의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는 이 대담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
 ③ ㉑은 의인법이 활용되지 않고 있고, ㉒의 '남한산성에 얽힌 항전의 역사'는 이 대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④ ㉑은 의인법이 활용되지 않고 있고, ㉒의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은 이 대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⑤ ㉑은 의인법이 활용되어 있지만, ㉒의 남한산성이 '옛 주창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이 대담에서 설명한 내용이 아니다.

실전

1회

본문 032~035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① 05 ④

01 [토의] 듣기·말하기 전략

이 토의의 사회자인 학생회장은 토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폐막식 행사 운영 방안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후 "그럼 다음 토의 때 뵙겠습니다."라고 하며 토의를 마무리 짓고 있을 뿐, 다음 토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미리 안내해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학생회장은 토의의 첫 부분에서 '오늘은 축제의 폐막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며 토의할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③ 학생회장은 토의를 마무리하며 연예인 사회자 섭외의 진행, 폐막식 프로그램 편성과 장소 선정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 등 토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④ 학생회장은 축제 폐막식의 사회자로 연예인을 섭외하는 방안을 둘러싼 친교부장과 총무부장의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학생회장은 발언이 적었던 체육부장에게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는 등 발언의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다.

02 [토의] 담화 과정과 내용 파악

이 토의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프로그램, 장소 등을 파악하여 행사를 기획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였으나, 이것의 의미를 토의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평가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학생회장은 토의의 첫 부분에서, 작년 폐막식 행사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② 토의 참여자들은 작년 폐막식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으로 프로그램의 단순로운 구성과 진행 솜씨가 부족한 사회자, 그리고 행사 진행에 부적절한 장소였던 운동장을 들고 있다.

③ 이 토의에서는 연예인 사회자 섭외 문제와 관련하여 친교부장과 총무부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드러나며, 폐막식 프로그램과 장소 선정에 둘러싸고도 체육부장과 총무부장 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 있다.

④ 연예인을 사회자로 섭외하는 데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였던 토의 참여자들은 적절한 비용으로 섭외할 수 있는 연예인을 찾아보자는 사회자의 절충안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있으며, 폐막식 프로그램과 장소 선정에 관해서도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자는 친교부장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있다.

03 [토의] 답화 과정과 내용 파악

학생들에게 실시할 설문 조사의 내용은 토의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다. 먼저 친교부장의 말에 따라 폐막식 프로그램과 장소 선정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총무부장의 말에 따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이 무엇인지도 물어 보아야 한다. 또한 마지막 학생회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작년 폐막식에 참여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폐막식 사회자의 경우, 적절한 비용으로 섭외할 수 있는 연예인을 찾아보기로 하였으므로 설문 조사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학생들의 취향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다.

② 학생들이 좋아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편성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다.

④ 폐막식 행사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으로, 친교부장의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폐막식 행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으로, 학생회장의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강연] 말하기 계획

강연은 일대다(一對多)의 말하기이지만 강연자와 청중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의사소통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강연의 강연자는 청중에게 질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중과 소통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강연자는 강연 도입부에서 인사를 하고 “큰 강당에서 강연을 해야 하니 멀리 계신 분들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연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강연자가 큰 소리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강연자는 “이성 교제는, 특히 저처럼 머리가 크고 못생긴 사람에게는 영화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였죠.”라는 말을 하여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연자가 유머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④ 제시된 강연은 강연자와 주제를 소개하는 도입 단계, 뒷받침할 사례나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강연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제시하는 전개 단계, 발표 내용을 마무리하는 정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⑤ 강연자는 청소년의 이성 교제 실태를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청소년들이 이성 교제를 하는 이유로 학업에 대한 압박과 가정에서의 대화 부족, 또래 집단의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알아두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말할 내용을 생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은 물론이고,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 설문지 조사, 라디오 방송 녹취 및 텔레비전 방송 녹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비롯하여, 어떤 개념에 관한 정의, 유명한 사람의 말 등의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자료들 중에서 새롭고 유머러스한 것, 청중에게 중요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실제 말하기에 활용하면 된다.

05 [강연] 답화의 수용 및 평가

강연자는 청소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이를 금지하면 역효과만 커질 것이라고 하며 주장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한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강연자는 고등학생의 이성 교제 경험 비율과 이성 교제 희망 비율에 관한 통계 자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다.

② 강연자는 처음 인사를 할 때 이름 외에는 자신에 대한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다.

③ 강연자는 정리 부분에서 전개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다.

⑤ 강연자는 청중에게 청소년들의 건전한 이성 교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다.

실전 2회

본문 036~039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① 05 ④

01 [토론] 듣기·말하기 전략

반대 2는 확인 질문에서 찬성 1의 주장대로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을 뿐, 찬성 측이 인용한 대학의 성명서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면 지역 주민은 풍부한 자료를 접할 수 있고, 학습 장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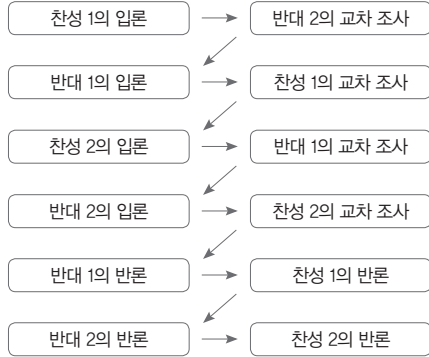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몇몇 대학의 ‘OLB(Open Library)’ 운동 이후 지역 사회에 대한 대학의 봉사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시하여 논제가 대두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실제 미국 대학의 사례를 들어 대학 도서관 개방으로 도서 자료와 시설물이 부족해지고, 연학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찬성 1은 반대 2가 확인 질문에서 지정한 도서관 예산 문제와 직원 수 부족 문제에 대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고, 자원 봉사 희망자들의 지원을 받아 부족한 도서관 직원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알아두기 반대 신문식(교차 조사) 토론의 개념과 절차

- 개념 : 찬성 측, 반대 측의 입론 이후 입론을 마친 토론자에게 상대 측 토론자가 질의하는 교차 조사 과정을 두는 토론
- 절차



02 [토론] 자료와 매체 활용

<보기>의 인터뷰에서 학생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개방된 이후, 책을 대출하기 어려워졌으며 열람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대학 도서관이 개방되면 도서관 자료와 시설이 부족해져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측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의 인터뷰를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자료는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 도서관 개방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므로, 찬성 측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② <보기>의 자료는 학생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찬성 측에서 대학 도서관 개방으로 공공 도서관의 열람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조할 때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④ <보기>의 자료는 대학 도서관 개방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대학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 ⑤ <보기>의 자료에는 도서관 직원 수가 부족한 것과 관련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발표] 말하기 계획

발표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청소년 심리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인터뷰 자료의 내용은 학교 폭력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교 폭력의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① 이 발표는 학교 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교육 제도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② 도입 부분의 “최근 연일 보도되는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를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라는 발표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학교 폭력은 뉴스에서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라는 발표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학교 폭력의 실태에 관한 발표를 할 때 최근 학교 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04 [발표] 듣기·말하기 전략

- ③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화제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밝은 표정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발표 주제에 맞게 진지한 표정과 분명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② 제시된 그래프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손짓으로 가리켜 주면 청중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 ③ 동영상이 나오는 동안 발표자도 함께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 바라보면 청중이 동영상에 집중할 수 있다.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으므로 잠시 발표를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
- ⑤ 발표를 마치면서 청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부분이므로 청중을 응시하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알아두기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언어 표현에 직접적으로 매개되어 의미 작용을 하는 억양, 속도, 어조 등을 가리킴 예 억양(말의 높낮이), 성량(목소리의 크기), 말의 속도(말의 빠르기), 어조(말의 분위기)
비언어적 표현	언어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 작용을 할 수 있는 시선, 표정, 몸짓 등을 가리킴 예 시선(상대방을 바라보는 눈길), 표정(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얼굴의 모양), 몸짓(손짓을 포함한 몸동작)

05 [발표] 담화의 수용 및 평가

발표자는 정리 부분에서 “지금까지 학교 폭력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라고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또한 학교 폭력의 원인을 직시하고 학생과 교육 당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서부터 학교 폭력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청중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를 마무리하며 청중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학교 폭력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청소년 심리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를 보여 줄 때, 전문가의 악력이나 경력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 ② 학교 폭력의 실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할 때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 ③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는 발표의 주제 및 배경을 설명하고 청중의 흥미를 유발해야 하므로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를 직접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은 적절한 평가이다.
- ⑤ 발표자는 학생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③

01 [토의] 담화의 수용 및 평가

성균이는 ‘학생 독서 지도팀’의 팀원 선발 기준으로 전과목 성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과목 성적은 독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성균이가 제시한 방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세정이는 정민이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② 진원리와 상준이는 많은 책 속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책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면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민진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권장 도서 선정에 노력을 기울이지는 논의 속에서 갑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책을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서 기대가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토의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⑤ 정민이는 기존의 권장 도서 목록에 이 토의에서 새롭게 논의된 ‘학생 독서 지도팀’이 서평을 쓰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방식과 새롭게 논의된 내용을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2 [토의] 담화 과정과 내용 파악

진원리의 발언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상준이의 발언을 통해 학교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권장 도서 목록이 있지만, 교훈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재미가 없다 보니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점 분석으로 학교 권장 도서 목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정리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학급 회장은 처음 부분에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며 토의 주제를 밝히고 있다.

③ 정민이는 흥미를 고려하여 권장 도서를 선정하자는 의견에 교훈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며 이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학급 회장은 학생들의 흥미와 교훈을 모두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토의 절차 중 해결안 탐색에 해당한다.

④ 성균이는 ‘학생 독서 지도팀’을 만들어서 매주 권장 도서 목록을 발표하게 하자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토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급 회장은 기존의 교훈성을 강조한 권장 도서 목록에 ‘학생 독서 지도팀’이 서평을 적어서 공유하자는 정민이의 제안을 해결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03 [토의] 듣기·말하기 전략

이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의 흐름에 맞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와 같은 적절한 질문을 던져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발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 발언 순서를 정해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학급 회장은 학급 회의를 시작할 때 독서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막상 책을 가까이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의제를 선정한 이유에 해당한다.

② 학급 회장은 “그러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책이 무엇인지 정보를 공유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군요.”, “학생들의 흥미와 교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군요.”와 같이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서 토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

④ 학급 회장은 “다음 학급 회의에서는 이번에 논의된 방법을 평가하여 수정 및 보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다음 토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을 미리 알려 주고 있다.

⑤ 학급 회장은 정민이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세정이가 정민이의 말을 가로막아 이를 제지하며 정민이가 의견을 마저 이야기하게 하여 토의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고 있다.

04 [대화] 듣기·말하기 전략

삼촌은 게임 제작자라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영재를 칭찬하면서, 동만이에 대한 배려 없이 영재와 동만이를 비교하며 동만이를 비하하는 농담을 하였다. 동만이는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삼촌의 조언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화를 주도하고 있지도 않다.

② 동만이는 영재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재를 데리고 삼촌에게 온 것이다. 따라서 동만리와 영재는 경쟁적 관계라기보다 협력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③ “동만이에게 삼촌께서 게임 제작자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삼촌을 만나게 해 달라고 동만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영재는 삼촌과의 대화에서 동만이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영재야, 네가 삼촌께 직접 말씀드리.”에서 알 수 있듯이 동만이는 영재에게 말할 기회를 넘겨 주고 있으며, 이 둘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발언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

05 [대화] 담화의 수용 및 평가

삼촌이 영재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기는 하지만 영재는 조카 동만이의 친구이므로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영재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온 상태이므로 손윗사람인 삼촌이 영재를 반갑게 맞이하며 미소를 띤 표정을 지어 주는 것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동만이는 여러 사람이 일하고 있는 삼촌의 작업실에서 큰 목소리로 삼촌에게 인사하고 있는데, 이는 공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삼촌이 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셋!”이라는 감탄사를 내뿜고 있으므로 동만이가 목소리를 작게 해야 한다고 평가한 것은 적절하다.

② 삼촌의 말을 통해 삼촌이 영재를 자기 쪽으로 오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을 내젓는 것은 상대방을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몸짓이므로 말의 의도와 맞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영재는 동만이 삼촌의 작업실에 약속 없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영재가 동만이 삼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시간을 빼앗기게 된 삼촌의 처지를 헤아려 갑자기 찾아온 일례에 대해 양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

⑤ 영재는 게임 제작자인 동만이의 삼촌에게 자신의 꿈 역시 게임 제작자라며 조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상관없는 영화 보거나 음악 감상 같은 자신의 취미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01 [협상] 말하기 계획

복사 가게에 가기 전에 학생들은 협상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조사하고 목표 가격을 정해 두었을 뿐, 가게 주인과의 협상에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협상 방안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학생들은 복사 가게 주인과의 협상에 임하기 전에 학교 주변 복사 가게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직접 조사하고 예상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③ 학생들은 복사 가게 주인과 자료집 복사의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복사 가게 주인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협상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④ 학생들은 자료집 겉표지에 컬러 사진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며, 가게 주인에게 그 전에 합의된 가격에 맞춰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게 주인이 도저히 그 가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자, 앞으로 1년 동안 동아리의 모든 책자를 A 가게에서 만들겠다는 대안을 내놓고 적절한 가격을 다시 제안하고 있다.

⑤ 학생들은 양측이 만족할 만한 협상의 결과에 이르게 되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였다.

02 [협상] 듣기·말하기 전략

민석이는 주변의 동아리 친구들에게 A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는 제안을 내세워 복사 가게 주인이 자신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랄 뿐, 가게 주인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게 주인은 학생들이 1년 동안 동아리의 모든 복사와 제본을 맡기겠다는 마지막 제안을 듣고 가격을 깎아 줌으로써, 더 이상 가격을 깎아 줄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조금 양보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③ 가게 주인은 가격과 복사의 품질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가격을 깎게 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간다며 학생들의 제안에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④ 수희는 자신이 이 가게의 단골손님이라는 점을 내세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⑤ 태준이는 자신들이 제안한 가격이 잘 수용되지 않는 시점에서 1년 동안 동아리의 모든 복사와 제본을 A 가게 주인에게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03 [토론] 듣기·말하기 전략

반대 측은 “○○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과 “가족들 중 누군가가 ○○님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은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명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문답을 통해 상대방의 답변을 이끌어 내며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측은 구체적인 설문 결과 수치를 제시하여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반대 측은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이 토론은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대 측은 찬성 측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시하는 입장이 될 수 없다.

③ 반대 측은 찬성 측과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측이 찬성 측에게 말할 기회를 양보하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제시된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을 뿐,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은 나타나지 않으며, 반대 측은 장애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있지 않다.

알아두기 토론에서의 말하기 전략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경우 자기 쪽의 의견이 옳다고 내세우며 상대방이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경쟁적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토론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점검하여 주장의 불합리한 점이나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상대방 또한 내 주장의 약점을 지적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04 [면접] 듣기·말하기 전략

면접관은 문에 창작과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교에 지원한 이유, 소설가가 되기 위한 학생의 준비 정도, 좋은 소설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묻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전문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등의 반응에서 면접관이 학생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② 학생은 소설가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 자신이 그동안 해 온 습작 및 수상 경력, 일기를 통해 연습하는 방법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하고 있다.

③ 면접관은 습작을 하고 있다는 학생의 말을 바탕으로 작문법을 배운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④ 학생은 면접관의 질문에 머뭇거리기 없이 또박또박하게 자신이 아는 바와 생각하는 바를 답변하였다.

05 [면접] 담화 과정과 내용 파악

㉠은 좋은 소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면접자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이다. 이때 학생은 면접자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고 있을 뿐 학업 성취 의지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면접에 앞서 학생이 긴장한 기색을 보이자 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던진 질문으로, 이와 같이 면접관은 점심 식사, 옷, 어머니 등 면접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통해 학생의 긴장을 풀어 주려 하고 있다.

② ㉡은 좋은 소설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피면접자가 질문에 대해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진술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이다.

④ ㉢에서 학생은 자신의 포부와 의지를 밝히는 말을 약간 높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있고, 이에 면접관이 목소리와 태도에서 의지가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반언어적 표현이 의미 전달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면접관은 자기소개서를 보고 인상 깊었던 학생을 직접 만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구두 언어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01 [토론] 듣기·말하기 전략

찬성 2는 사복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주장한 반대 1의 의견에 교복 구입 비용도 부담이 크라며 바로 반박하고 있을 뿐 반대 1의 주장을 요약하거나 정리하고 있지 않다. 찬성 2는 반대 측이 이미 알고 있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복을 입는 것이 교복을 입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교복 자율화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건의함에 교복 자율화에 관한 의견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토론을 해 보고자 한다고 토론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여기에 계신 여학생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라고 하며 토론에 참여한 여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을 근거로 수업 효율성을 위해 교복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③ 반대 1은 “교복이 불편하다는 찬성 1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라고 하며 찬성 1의 발언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⑤ 찬성 2는 “이 원그래프를 봐 주십시오.”라고 하며 토론 참여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학교 신문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를 시각 자료로 준비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02 [토론] 담화의 수용 및 평가

반대 2는 저렴하고 질 좋은 사복을 선택하여 입는 것이 교복을 입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찬성 2의 주장을 듣고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 있다. 이는 언어 예절에 어긋난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악영향을 미친다.

오답 풀이 ① 반대 2는 찬성 2의 입문을 듣고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이다.

② 반대 2는 찬성 2의 의견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능동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③ 자아 개념을 노출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격, 취향, 사고방식 등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반대 2는 불필요한 자아 개념을 노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반대 2는 찬성 2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능동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

03 [대화] 듣기·말하기 전략

㉞은 선생님이 조원들을 바꾸어 달라는 조장 현우의 말을 다른 조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부분이다. 따라서 선생님은 현우가 한 말의 내용이나 주장의 공정성을 평가한 것이지 신뢰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선생님은 조원을 바꿔 달라는 현우의 말만 듣고 현우가 찬호와 다투었다는 사실을 추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선생님은 찬호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뜻으로 “그래?”라는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선생님이 찬호와 근영이 때문에 곤란해하는 현우에게 공감의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선생님은 조원을 바꾸어 달라는 현우의 요구가 과제 수행 시 생기는 문제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조정하는지도 평가한다는 조별 과제 수행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현우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알아두기 공감적 듣기 방법

-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도록 격려한다.

04 [토의] 듣기·말하기 전략

하은이는 유진이의 의견이 토의 안전에서 벗어나 있다고 일방적으로 지적하며 발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둘은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회자도 하은이의 의견을 인정하고 바로 토의를 이어 가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유진이는 낡은 책상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자리 배정 방법’이라는 토의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이다. 따라서 토의의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희수는 하은이의 담화를 경청한 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하은이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덧붙이고 있다. 이는 협력적 상호 작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사회자는 마지막에 하은이, 희수, 승민이의 견해를 요약·종합하며 토의라는 집단 소통 과정에서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⑤ 승민이는 하은이와 희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시력도 키와 함께 고려하여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이고 있다. 이는 ‘새로운 자리 배정 방법’이라는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5 [토의] 담화의 수용 및 평가

영수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앞자리에 앉아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선생님들도 더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리 배정에 따라 선생님의 수업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청아의 견해를 타당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리를 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수업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청아의 의견이므로, 영수는 담화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청아는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리 배정에 따라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청아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④ 청아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앞자리를 원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학급의 일부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려한 편향된 의견으로 공정성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영수는 시험 성적에 따라 자리를 배정하는 방안이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여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⑤ 영수는 청아의 발언을 듣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의견을 보충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영수가 청아의 의견을 내용 구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다.



작문

기출로 개념 익히기

(1) 정보 전달

본문 056~061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⑤ 05 ② 06 ③ 07 ①

01 글쓰기 계획

(가)에서 발명가인 선힌이는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4문단에서 학생 1은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며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㉔에는 ④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발명가가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나)의 학생 1은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한다.'로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발명 도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아니다.

② 발명가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로,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발명가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각 단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양념담는 통이 아닌 필기구를 예로 들고 있다.

⑤ 발명가는 발명이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서는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창출해 낸 아이디어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02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④에서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나)의 중심 내용인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단계를 요약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모형의 단계를 따라 하면 쉽게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나)의 1문단에 제시된 '이것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쉽게 발명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지닌 의의를 덧붙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중심 내용인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단계를 요약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생님의 조언을 따랐다고 볼 수 없다.

②, ⑤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단계를 요약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지 않았으므로, 선생님의 조언을 따랐다고 볼 수 없다.

③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을 요약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선생님의 조언을 따랐다고 볼 수 없다.

03 내용의 보완·조정

(나)에서는 중심 화제인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전거'를 예로 들어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와 같은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나)는 2~4문단에 걸쳐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글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각 문단의 맨 앞에 '먼저', '그 후', '마지막으로'와 같이 순서를 알려 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③ 2문단의 '그리고 직접 자전거를 타 보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보이기도'를 '보기도'로, '탐색된다'를 '탐색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④ 3문단의 '이때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상문을 써 보는 것도 좋다.'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인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의 중심 내용과 맞지 않아 통일성을 떨어뜨리므로 삭제해야 한다.

⑤ '즉 자전거가 아닌,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는 바로 뒤의 문장인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 것이므로,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야 내용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04 글쓰기 계획

<본문>의 5문단에는 학교에서 기증한 소나무들이 시민 공원에 잘 적응한 까닭에 솔숲 개방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졌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㉔의 내용은 5문단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는 미리내 솔숲 개방 행사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참석 대상이 제시되었으므로 ㉑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는 새로운 체육관을 지어야 할 터에 자리 잡고 있던 소나무들을 옮길 장소가 없어 소나무들을 베어 버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므로 ㉒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는 소나무들을 베어 버려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학생회와 동문회에서 우려를 표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므로 ㉓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는 베일 위기에 처했던 소나무들을 시민 공원에 기증하기까지의 과정이 제시되었으므로 ㉔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보기>에서 학생은 학생회장의 말을 바탕으로 예상 독자에게 '소나무 기증의 의의'가 잘 전달되도록 부제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사 초고의 6문단에서 학생회장은 '소나무 기증을 통해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인 '나눔'과 '협력'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번 기증으로 시민들의 쉼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며 소나무 기증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성했을 부제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미리내 솔숲의 개방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학생회장이 말한 소나무 기증의 의의가 담겨 있지 않다.

③ 공공 녹지 조성과 나무 생태 보전은 시민 공원의 설립 취지이자, 미리내 솔숲이 갖는 의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생회장이 말한 소나무 기증의 의의와는 거리가 있다.

④ 학생회장이 소나무들을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이라고 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소나무 기증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무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내용은 학생회장이 언급한 소나무 기증의 의의와 관련이 없다.

㉔ '앞으로 우리 학교의 상징물인 소나무들이 지역 사회의 상징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한 글쓴이의 솔솔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을 뿐 학생회장이 말한 소나무 기증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06 내용의 보완·조정

'합의했다'의 행위 주체는 '학생회와 동문회'로 이미 문장의 앞 절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 공원'을 주어로 추가한다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개최될 행사에 대한 서술어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㉔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따라서 ㉔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참석할 예정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② '신축'은 '새로 지음'이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이미 '새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의미 중복을 피하기 위해 ㉔는 삭제해야 한다.

④ '비단'은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이므로,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㉔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㉔는 '때마침'으로 수정해야 한다.

⑤ '-되다'와 '-어지다'를 함께 사용하여 피동 표현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㉔는 '해결되었다는'으로 수정해야 한다.

07 글쓰기 계획

'답사 보고서'의 '우리 동아리에서는 배개 용암을 직접 답사하고 그곳의 특이한 지형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 주기로 했다.'에 답사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라는 답사 취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답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답사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답사 보고서의 '배개 용암의 형성 과정, 구성 성분과 등과 같은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에서 답사 대상의 지질학적 가치를 언급하며 보고서의 의의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답사 보고서의 '우리 동아리에서는 배개 용암을 직접 답사하고 ~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 주기로 했다.'에서 답사 목적과 답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답사 보고서의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개 용암은 ~ 발견된 예가 드문 것이라고 한다.'에서 답사 대상과 사전 조사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답사 보고서의 '얼마 전 ○○신문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아우라지 배개 용암이 천연기념물 542호로 지정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에서 최근 기사를 활용하여 답사 동기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1 글쓰기 계획

(가)의 4문단에서는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일이 2주 이상 걸리는 경우 방학을 활용한다.'라고 하며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측에서 하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㉑). 그리고 2~4문단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현재의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㉒).

오답 풀이 ㉑ (가)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지는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㉒ (가)는 현재의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하지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 단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예상되는 반론을 떠올려 그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 않다.

02 글쓰기 전략

(나)의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이라고 하며 (가)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학교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수업의 연속성 확보와 학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절충안을 제시한다는 ⑤는 (나)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의 1문단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 즉, (가)로 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하고자 한다면서 (나)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히려 학기 중보다 여름방학 기간에 학습 부담이 커져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며 여름방학의 의미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여름방학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가)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③ (나)의 3문단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며, 2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개인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나)의 4문단에서는 학기 중 공사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가)의 주장을 비판하며, 오랜 시일이 필요한 공사는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고 시급한 공사의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는 것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03 자료 활용 방안

[A]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수업 공백이 줄어들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름방학 기간이 서로 다른 두 학교 학생들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 연속성이 관련 있다는 (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A]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는 (나)의 4문단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A]가 아닌 (나)의 3문단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A]가 아닌 (나)의 2문단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④ [A]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을 줄이면 겨울방학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A]는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는 [A]의 진술을 잘못 이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04 글쓰기 전략

초고를 쓴 학생은 A 단지 학생들이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의 초고에서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학생의 초고에서는 학생 전용 급행 노선 신설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결 방안이 지닌 한계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 ③ 학생의 초고에 제시된 해결 방안은 학생 전용 급행 노선 신설뿐이므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학생의 초고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5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에는 학생 전용 급행 노선 신설로, 건의 주체인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의 주체인 A 단지 학생들이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을 해결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⑤가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시내버스 회사와 ○○사가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이점은 제시되어 있으나, 건의 주체인 A 단지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③ 건의 주체인 A 단지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제시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학부모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제시되어 있으나, 건의 주체인 A 단지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6 자료 활용 방안

(가)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등학교 학생의 인터뷰이고, (나)는 A 단지 고등학생들이 시내버스 대신 자가용을 등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통계 자료이다. 따라서 (가)와 (나)를 활용하면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자가용 이용률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③은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가)와 (나)의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자신이 겪은 불편함을 드러낸 인터뷰이므로 등곳길 시내버스 노선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 ② (나)는 학생들의 시내버스 이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내버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④ (나)는 시내버스 이용률이 줄어드는 만큼 자가용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다)는 타 지역에서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운영되면서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운영 전보다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를 활용하면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자가용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가)는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너무 많은 곳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다는 내용이고, (다)는 등고 급행 노선이 통학생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학교까지 일부 정류장만 경유하기 때문에 통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가)와 (다)를 활용하면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학생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기출로 **재능** 익히기 (3)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 본문 070~073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1 내용의 연상

‘생각해 보면 이 푸른 잔디는 바짝 마른 갈색 잔디가 되었다가 추운 겨울을 견디며 다시 푸른 잔디로 살아나는 것이었다.’를 통해 학생이 관찰한 대상이 바짝 마른 갈색 잔디가 아니라 푸른 잔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2문단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다니며 저 길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밟혀 사라진 잔디가 불쌍해졌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의 ‘사람들에게 밟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잔디는 다시 싹을 틔운 것이었다. 나는 그 잔디 싹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의 ‘잔디밭에 함께 모여 촘촘히 자라는 잔디를 보니 잔디가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 왔다는 생각도 들어 대견함을 느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의 ‘그 길을 계속 보다 보니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의 처지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한때 꿈이 흔들렸던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라진 잔디가 더 안쓰럽기도 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2 내용의 보완·조정

‘-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을 ‘푸르지만’으로 고치면 그 뒤에 ‘푸르다’와는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 뒤에 오는 ‘무성하다’는 ‘푸르다’와 대등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은 현재와 같이 ‘푸르고’로 유지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동사 ‘겪다’는 서술어 자리에서 쓰일 때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 ‘어려움’에는 목적격 조사를 사용한 ‘어려움’으로 고쳐야 한다.
 - ② ‘눈에 보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뜨이다(되다)’이다. 따라서 ㉠ ‘뜨었다.’는 잔디밭이 눈에 보였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뜨었다’로 고쳐야 한다.
 - ④ ㉠의 앞뒤 문장은 모두 잔디의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그러나’로 연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

라서 ㉔'그러나'는 '그 위에 더 또는 거기에도 더'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 '또한'으로 고쳐야 한다.

㉕ '뜻한 대로 되게 하다.'라는 뜻의 '이루다'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므로, ㉔에는 '꿈을'이라는 목적어를 첨가해야 한다.

03 내용의 보완·조정

(나)의 대화에서 동생이 해설 도우미가 초등학교생에게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자, 누나는 자기소개서에 해설 대상인 초등학교생과의 친화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자 동생은 초등학교생을 돌보았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되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㉔는 학급 친구들과의 친화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생과의 친화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동생은 단순히 자기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목적으로서 부족한 것 같다는 누나의 조언을 들은 후, 선발 담당자에게 자신이 해설 도우미로서 적합함을 보이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목적임을 깨닫는다. 따라서 ㉔와 같이 글의 목적을 구체화한다는 조정 방안은 적절하다.

② (나)에서 누나는 동생에게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의 입장이 되어 지원자에게 어떤 점이 궁금할지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이에 동생은 '내가 해설 도우미로 적합한지가 궁금하겠지.'라고 말하며, 선발 담당자가 단순히 자신의 학교 생활을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따라서 ㉔와 같이 예상 독자의 관심사를 재설정한다는 조정 방안은 적절하다.

③ (나)에서 누나는 동생이 언급한 활동 경험을 듣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㉔와 같이 활용할 내용 중에서도 범위를 좁혀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자질을 보여 줄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조정 방안은 적절하다.

⑤ (나)에서 누나는 동생에게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경험의 의미를 경험 내용과 연관 지어 조직하면 글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㉔와 같이 선별한 경험의 내용과 그 의미를 함께 제시한다는 조정 방안은 적절하다.

04 내용의 구체화

(나)의 대화에서 누나와 동생이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활용하자고 한 것은 해설 대상인 초등학교생과의 친화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조 교사 활동을 학업과 병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나)의 대화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목과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곧 지역의 향토 문화를 해설해 주는 향토 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 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③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경험을 통해 기른 발표 능력은 설명 능력이 필요한 향토 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 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④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경험을 통해 초등학교생과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은 향토 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가 해설 대상인 초등학교생과의 친화력이 필요한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01 [논설문] 자료 활용 방안

(라)에 제시된 꺾은선 그래프는 청소년들이 주로 밤 시간대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로는 바람직한 텔레비전 시청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바람직한 텔레비전 시청 태도를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라는 내용도 생성할 수 없다.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주로 시청하는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예능·오락 프로그램이 주로 방송된다는 자료를 같이 보여 주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를 통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를 통해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에 상당한 여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텔레비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학생의 올바른지 못한 시청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③ (다)에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는 예능·오락 프로그램들이 선정성이나 폭력성으로 인해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함을 알 수 있다.

⑤ (마)를 통해 텔레비전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올바른 텔레비전 시청 태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02 [논설문] 글쓰기 전략

<보기>는 국어 대사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글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등급개'의 예를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㉔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보기>와 동일한 예시의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

② 텔레비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대조한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

③ 텔레비전의 역할을 사회 교육 교사에 빗대고 있으므로 비유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④ 텔레비전의 시각 정보가 뇌까지 전달되는 경로를 보이는 과정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03 [감상문] 글쓰기 전략

'학생의 글'에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본 후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겠다는 자신의 꿈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생겼다는 개인적인 경험과 느낀 점이 나타나 있다. 이는 글쓴이의 개성과 주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감상문의 성격을 고려하여 영화의 내용과 개인적인 경험을 연결하는 글쓰기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작품에 대한 다양한 감상이 아닌 글쓴이 개인의 감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작품에 대한 글쓴이 개인의 관점만 드러난다. 따라서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과제 수행을 위한 글쓰기 전략에서 서술 방식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 있지 않고, 학생의 글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서술 방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개성과 주관이 분명히 드러나는 감상문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사람의 감상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글을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생의 글에서도 다른 사람의 감상을 언급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학생의 글에 영화의 줄거리가 제시되어 있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글의 목적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느낀 점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영화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영화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4 [감상문] 내용의 보완·조정

㉔의 앞뒤 문장의 내용이 상반되므로 역접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 '하지만'의 쓰임은 적절하다.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등이 될 때 사용한다.

오답 풀이 ① ㉔의 앞부분은 글쓴이가 처한 상황과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보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사실 미국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㉔의 내용은 앞부분과 연결되지 않고 글의 주제와도 관련이 없으므로 통일성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좋다.

② ㉔은 '발레가 여자들만 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생각을 의미하므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하는 '편견'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④ ㉔의 주체, 즉 오디션을 보는 사람은 '빌리'이므로 '빌리는'이라는 주어를 추가해야 한다.

⑤ ㉔은 '꿈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이라는 조건절과 호응이 되는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알아두기 작문 과정에서 재고와 조정 전략

의미 지도 그리기	초고를 쓴 직후에 내용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자신이 쓴 글의 의미 관계를 따져 볼 수 있음
훑어 읽기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 읽으며 첨가, 삭제, 대체, 재배열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지 간단하게 표시함
둘러 읽기	초고를 쓴 후에 가능한 한 여러 사람에게 읽어보게 함으로써 다양한 반응을 들을 수 있음

05 [보고서] 자료 활용 방안

최근 한 달 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고민의 종류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나)와 (라)에서 이미 조사한 자료이므로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을 찾아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자료 (다)에서 고민 상담의 상대로 선생님이 부모님이나 친구 등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려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자료 (라)에서 고민이 생겼을 때 고민을 그냥 참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고민을 그냥 참는 경우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 보려는 것은 조사 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적절하다.

④ 자료 (나)에서 고민의 종류에 기타 의견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고민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기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보려는 것은 적절하다.

⑤ 자료 (가)와 (라)를 통해 현재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 비해, 고민을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1/3 정도이므로, 이들이 고민을 해결한 경우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01 [수필]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B팀의 총 안타 수는 A팀보다 적었지만 한번 안타가 터지자 그 여세를 몰아 득점을 많이 하여 A팀을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을 인생에 적용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인생의 기회가 우연히 찾아오기도 한다는 내용을 생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타격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루 작전도 감행'하여 경기를 이긴 것에서 인생에서도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상대 팀이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평소보다 일찍 마무리 투수를 투입'해 A팀의 추가 득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상황에 맞게 선수를 기용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④ 타자들이 출루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평소 강도 높게 훈련해 온 타격법을 따르며' 경기에 임해 출루율을 높인 것은 인생에서도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다.

⑤ 타자들이 상대 팀 투수의 공을 공략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상대 팀 투수의 공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위기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타격 지침을 내린 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이를 인생에 적용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

02 [안내문] 글쓰기 전략

이 안내문에는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을 뿐, 사회적 차원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안내문은 비상 코리아의 교육 협력 사업인 '행복 도우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소개하며, 학업 능력이라는 재능을 기부하여 교육 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② 신청 자격란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지 기관의 초등학생들에게 교육 봉사 활동을 벌이는 일이므로 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한 정보를 '신청 자격, 봉사 시간, 내용, 자원 봉사자 혜택, 참가 접수 방법'의 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④ "비상지기'란?', '비상지기로 활동하면?'과 같은 물음 형식의 제목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문답법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03 [안내문] 자료 활용 방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안내문에서 '교육 봉사 활동'은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가)~4'에 전제된 것처럼 핵심 정보를 훼손해서는 안 되므로 핵심어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2'에서 교육 봉사 활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교육 봉사 활동의 의미를 알게 해 주므로 내용 생성 계획으로 적절하다.

② 활동 사진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시각적 정보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가)~3'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기존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활동과 관련한 인식을 높이는 데 적절하다.

④ (나)에서 재능 기부 신청 건수는 2010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재능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위기에 다같이 동참하자는 문구를 넣는 것은 적절하다.

⑤ (나)에서 '교육, 결연, 학습 지도 등'의 재능 기부자의 수가 다른 항목의 재능 기부자보다 부족함을 이용해 이 분야의 참여를 호소하는 것은 내용 생성 계획으로 적절하다.

04 [비평문]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⑤는 '과제 수행을 위한 글쓰기 전략'의 구성 방식에 따라 팝 아트가 현대 미술사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창조적 표현을 통한 비판 정신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제언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의 팝 아트는 선장이 없는 배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뿐이다', '~있다'와 같이 문장마다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 '한계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 또한 유효할 것'처럼 팝 아트의 발전에 대한 제언이 드러나 있으며, '~것이다', '~뿐이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문장을 끝맺고 있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팝 아트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 아니라 팝 아트를 감상할 때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제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단정적 어조로 글을 전개하고 있으나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팝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들인 앤디 워홀, 클라크 울덴버그,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는 팝 아트의 발전을 위한 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단정적이라기보다는 설명적인 어조가 나타난다.

④ 팝 아트를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이유를 단정적인 어조로 밝히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 되어 버렸다. 비유적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05 [비평문] 내용의 보완·조정

㉔가 포함된 문장에서의 주어는 '대중들이'가 아니라, '팝 아트는'이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문장의 호응을 고려했을 때 ㉔는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학생이 작문한 글에서는 팝 아트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㉔는 이러한 내용의 핵심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팝 아트를 위하여'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㉔의 앞부분과 뒷 부분에서는 모두 팝 아트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대등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됨을 의미하는 접속사 '그러나'를 사용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따라서 '그리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㉔는 불필요하게 문장이 길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의미 단위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 ㉔의 경우,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관점과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침표를 기준으로 두 문장으로 끊는 것이 적절하다.

⑤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등을 찾아냄'이라는 의미의 '발견'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일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됨'의 의미인 '발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1 [논설문] 자료 활용 방안

'(나)-2'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원인은 기업의 보안 체제가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업체가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2'를 통해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 관리자의 인식 부족과 도덕성 부재가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문제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1'은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건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2013년의 발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② '(가)-2'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 등록 번호 도용임을 알 수 있다. '(나)-1'에서는 주민 등록 번호 도용을 비롯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자료는 주민 등록 번호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다.

③ '(나)-1'은 ○○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④ '(나)-1'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의 사례이고, '(나)-2'는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기술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장할 수 있다.

02 [논설문] 내용의 보완·조정

결론에서는 글의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고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이 개요에 나타나는 본문을 요약하면 현재 ㉔의 내용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중요성 강조'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서론에서 개인 정보 유출 문제의 실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실태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언급하며 내용을 구체화하고 문제 상황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② ㉔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에 해당하고, 'II-2-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시스템 부족'은 개인 정보 유출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두 항목의 위치를 서로 바꿔야 한다.

③ 'II-2'에는 'II-1-다'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제도 및 법적 미흡에 대응되는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II-2'에 '개인 정보와 관련된 제도 및 법적 제정'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④ ㉔의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의 제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문제의 실태와 문제점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서론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수필] 글쓰기 계획

이 글의 글쓴이는 과거와 달리 나타해진 오늘날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과 학생들의 태도가 비슷하다고 여기고 있는 있으나 학생들을 훈계하려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자기 성찰을 위한 글에서 독자를 훈계하거나 교훈을 주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정전은 글쓰기가 자신의 나태함을 깨닫게 되는 단초가 되므로 현상의 발견 과정으로 적절하다.

② 글쓰이는 촉불의 밝기를 닮아 책을 덮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현상의 발견 과정으로 적절하다.

③ 글쓰이는 자신과 학생들의 태도가 비슷하다고 연결 짓고 있으므로 발견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글쓰이는 환경 탓을 하며 보던 책을 덮으려고 했던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면서, 인간이 꿈을 이루는 데는 외부의 환경보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내용은 현상을 통해 글쓰이가 발견한 삶의 의미로 적절하다.

04 [설명문] 글쓰기 전략

2문단에서는 ‘초창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태로 대화방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홈페이지 개설을 도와주는 정도의 형태였지만, ‘이제는’ 단순히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친목 도모의 목적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변화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③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일 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④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 및 전개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글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이야기할 뿐, 이 상황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05 [설명문]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앞 문단의 중심 내용을 언급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지닌 장점과 단점을 ‘동전의 양면’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단점을 언급하고 ‘보이지 않는 망’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 문단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앞 문단의 내용을 언급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점으로 쉬운 관계 형성을, 단점으로 정보 누출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유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④ 중심 내용을 언급하며 현실의 각박한 인간관계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해소되고 있는 장점을 제시할 뿐 단점을 밝히지 않았으며, 비유적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⑤ 앞 내용을 언급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이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과 이런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쉽게 도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비유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알아두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기능

- 신상 정보의 등록 및 공개 : 이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문화적 취향, 이데올로기, 종교 등을 전부 또는 선택적으로 공시함. 이러한 개인 정보 공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 의견이나 정보의 게시 : 이용자가 의견이나 정보를 게시할 수 있고, 그 이용자와 연계를 맺고 있는 이용자를 포함해 다른 이용자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또 다른 의견이나 정보를 게시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사진이나 비디오 공유, 인스턴트 메시징이나 모바일 지원 기능 등도 포함됨

실전 4회

본문 088~091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⑤ 05 ⑤

01 [설명문] 글쓰기 계획

이 글은 한글의 과학성이라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설명문의 계획서이다. 한글의 과학성을 제자 원리와 운용 원리로 나누어 제시한 후, 각 원리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을 나열하고 관련 주제끼리 엮어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즉 논리적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 방법 중에서도 주제별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쓰려는 글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지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또 한글의 과학성은 문제가 되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가 되는 현상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조직 방법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독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글의 목적을 잘못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한글의 과학성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④ 독자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맞으나 공간적 이동에 따른 내용 전개는 드러나지 않는다. 중간에 제시된 정보들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정보의 속성상 나열 구조로 조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한글의 변천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계획서에서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변천 과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알아두기 논리적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 및 전개

인과적 방법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결과에 따라 내용을 조직·전개함
문제 해결식 방법	문제 제기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에 따라 내용을 조직·전개함
주제별 방법	중심 화제와 관련하여 주제를 엮어 내용을 조직·전개함

02 [설명문] 내용의 보완·조정

끝부분에는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요약과 정리는 중간 부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언어가 지닌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의 핵심 내용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예상 독자의 범위를 '전국의 학생들'이라고 너무 넓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맞춰서 대상을 설명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예상 독자가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 관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예상 독자를 구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② ㉡은 인터넷의 개인 누리집에서 수집한 자료이므로 정보의 정확성을 획득하기 위해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자료로 선정해야 한다.

③ ㉢은 한글의 디자인적 측면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한글의 과학성'이라는 설명 대상과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글의 통일성을 위해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글의 목적과 완결성을 고려할 때 한글이 지닌 과학적 원리를 요약정리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올바른 한글 사용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정보 전달이라는 주제와 어긋나는 내용이다.

03 [식사문] 글쓰기 계획

식사문은 격식을 갖추어 행사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이 행사에서 낭독할 축하에는 개교 100주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감정이 충분히 드러나야 하므로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학교 관련 이야기만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100주년 기념 행사가 공적인 자리임은 맞지만 식사의 성격에 따라 표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풀이 ① 식사문은 행사 현장에서 낭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글이므로 청중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식사문은 청중을 분석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개교기념일 행사에서는 졸업생,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다양한 청중이 참석하고 있으므로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초대장의 식순에 따르면 학생 대표 축하 이외에도 여러 축사가 연달아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중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축사의 도입부에 흥미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이 행사의 취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재학생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04 [식사문]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⑤는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밝히고 있고, 청중에게 감회를 묻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를 뿌리 깊은 나무에 비유하여 행사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렇게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라며 축사를 하게 된 소감과 목적은 드러내고 있지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없다. 또한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②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학생 대표로 축사를 하게 되어 떨리면서도 기쁩니다.'라며 소감을 전하고 있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라는 행사의 목적은 드러내고 있으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③ '우리 행사를 시샘하듯 빗방울이 흘날리는 곳은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지요?'에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과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라는 목적이 제시되지 않았고 축사를 하게 된 소감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학생 대표로 축사를 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에서 소감을 드러내고 있고, '오늘 이 자리는 배를 이끄는 선장처럼 ~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행사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05 [논설문] 내용의 보완·조정

개요의 주 내용이 육식 위주 식단의 문제점과 채식 위주 식단의 이점이고 채식 위주의 식문화 확산 방안을 제시해야 하므로, 결론은 '채식의 중요성 인식과 적극적인 실천 요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기농 먹을거리의 안전을 위한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기 1>의 내용과 연결성이 적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선후 관계를 고려했을 때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이 확산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② 'Ⅱ. 본문 1: 육식 위주 식단의 문제점'은 하위 항목인 윤리적, 환경적, 건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포괄하는 제목이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③ '동물성 지방으로 인한 심장 순환계 질환 유발'은 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Ⅱ-3-가'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④ '비윤리적인 환경에서의 가축 사육 감소'는 'Ⅱ-1-가'와 대응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전 5회

본문 092~095쪽

01 ② 02 ⑤ 03 ① 04 ③ 05 ⑤

01 [건의문] 자료 활용 방안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 계획서이므로, 제시할 자료도 매점의 식품이나 학생들의 건강과 연관된 내용이어야 한다. 매점의 시설이나 이용 시 불편함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의 영양 성분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매점에서 파는 식품의 질이 좋지 않아 학생들에게 유해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③ 글의 목적이 학교 매점에서 건강에 해롭지 않은 식품만을 판매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식품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매점에서 식품을 사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은, 매점에서 파는 식품의 질이 좋지 않아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해를 끼친 내용이므로 문제 상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⑤ 청소년기에 섭취하는 영양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매점에서 건강에 좋은 식품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02 [건의문] 글쓰기 전략

건의문을 작성할 때에는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발생할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하여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

다. 이 글의 계획서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게 될 것을 기대함’이라며 기대 효과를 언급했지만, 작성한 건의문에서는 매점에서 파는 식품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내용 외에 그로 인한 기대 효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수신자인 교장 선생님께 존칭을 사용하고, 예의 바르고 정중한 표현으로 건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②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학교 매점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 학생들의 건강이 아닐까요?’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매점에서 파는 식품을 관리하는 기준을 만들 것과 안정성이 검증된 식품 목록을 마련하여 목록에 있는 식품만 판매하도록 하자는 등의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건의문의 두 번째 문단에서 매점에서 파는 식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 먹는 적이 있다는 전교생 대상 설문 조사의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면서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

03 [기사문] 자료 활용 방안

(가)는 사이버 범죄의 발생 건수를 유형별로 정리한 통계 자료이다. (가)를 통해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사기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발생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제도적 처벌과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생성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으로, 사이버 범죄를 당한 청소년들 대부분이 사이버 범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보와 이해 부족 실태를 내용으로 생성할 수 있다.

③ (다)는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사례로,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속앓이만 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도 겪는다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④ (가)는 유형별 사이버 범죄의 발생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로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인터넷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다)의 학생도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이므로 (가)와 (다)를 통해 인터넷 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⑤ (나)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는 이유가 정보 부족 때문임을 알 수 있고, (다)를 통해 청소년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두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04 [자기소개서] 내용의 구체화

‘학생의 글쓰기 계획’에 따르면 ‘2-(2)’에서 자신의 장점을 건축가에게 필요한 자질과 연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③에서는 활발한 성격으로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의 장점과 이를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겠다고만 하였지, 이러한 장점이 구체적으로 건축가가 지녀야 할 어떠한 자질과 연결되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고공 답사반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며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다짐을 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건축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관련 전시회를 관람하거나 건축 관련 서적을 읽는 등의 노력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어느 건축가와 관련한 기사를 읽고 건축가를 꿈꾸게 되었다며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5 [자기소개서] 글쓰기 전략

예상 독자가 같은 반 친구들이므로 또래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건축물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이를 전문 용어가 아닌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블로그는 개설자와 방문자, 또는 방문자와 방문자 사이에 정보를 즉각적으로 교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시판은 만드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다.

② 블로그는 인터넷 매체의 하나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존경하는 건축가에 대한 동영상 상입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다.

③ 블로그는 소개하는 내용과 관련된 다른 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전략이다.

④ 블로그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직접 찍은 건축물의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다.

알아두기 인터넷 매체의 언어 양식과 특징

문자 언어	• 제목이나 본문에서 사용되는 글 • 감각적이고 압축적 표현으로 이름이나 제목에 사용됨
음성 언어	• 말, 음악, 음향 효과 등 • 효과음이나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어 개성을 드러냄
영상 언어	• 그림, 사진, 동영상 등 •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제시함



문법

기출로 3년 익히기 (1) 음운

본문 100~101쪽

01 ① 02 ① 03 ② 04 ④

01 음운과 음운 체계

제시된 자료의 예인 ‘끼’와 ‘딸’의 초성에 있는 ‘ㄱ’과 ‘ㄷ’은 마치 두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ㄱ’, ‘ㄷ’은 된소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자음이다. 따라서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ㄱ~ㄹ의 예에서 종성에 ‘ㅌ’, ‘ㅍ’, ‘ㄱ’, ‘ㄷ’, ‘ㄴ’, ‘ㄹ’, ‘ㄷ’, ‘ㄴ’ 등의 모음만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절한 설명이다.

③ ㄷ, ㄹ의 예에서 종성에 ‘ㄹ’, ‘ㄱ’, ‘ㅇ’, ‘ㄴ’의 자음만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절한 설명이다.

④ ㄱ, ㄷ을 통해 초성이 없는 음절의 유형, ㄱ, ㄴ을 통해 종성이 없는 음절의 유형을 알 수 있다.

⑤ ㄱ~ㄹ을 통해 현대 국어의 모든 음절 유형에 종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음운의 변동

음절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는 이 중 한 자음이 탈락하므로 ‘흙하고’는 첫음절 끝에서 ‘ㄷ’ 탈락이 일어나 [혹하고]가 되고, 이후 받침 ‘ㄱ’과 ‘ㅎ’이 합쳐져서 ‘ㅋ’이 되는 축약이 일어나 [혹카고]로 발음된다. 따라서 ‘흙하고[혹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저녁연기’는 먼저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 [저녁년기]가 되고, 다시 비음이 아닌 받침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저녕년기]로 발음된다. 따라서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③ ‘부엌문’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ㄱ’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 [부엌문]이 되고, 다시 받침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부엌문]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복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ㄱ’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 [복는]이 되고, 다시 비음이 아닌 받침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복는]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부엌문[부엌문]’과 ‘복는[복는]’ 모두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④ ‘엎지’는 첫음절 끝에서 ‘ㄷ’ 탈락이 일어나 [언지]가 되고, 다시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 ‘ㅌ’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언찌]로 발음된다. 그리고 ‘물고’는 첫음절 끝에서 ‘ㄱ’ 탈락이 일어나 [물고]가 되고, 다시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물꼬]로 발음된다. 따라서 ‘엎지[언찌]’와 ‘물고[물꼬]’는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⑤ ‘넌네’는 첫음절 끝에서 ‘ㄴ’ 탈락이 일어나 [넌네]가 되고, 다시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넌레]로 발음된다. 그리고 ‘밝는’은 첫음절 끝에서 ‘ㄹ’ 탈락이 일어나 [박는]이 되고, 다시 비음이 아닌 받침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박는]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넌네[넌레]’와 ‘밝는[박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03 음운의 변동

㉗의 ‘흙일 → [혹닐]’은 ‘흙’의 겹받침 ‘ㄷ’ 중에서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혹일]이 되고, 합성어(흙+일)를 이룰 때 앞말의 음운에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될 때 ‘ㄴ’이 첨가 되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 [혹닐]이 된다. 그리고 비음이 아닌 ‘ㄱ’이 비음 ‘ㄴ’을 만나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자음 동화)가 일어나 [혹닐]로 발음된다. ㉘의 ‘닭는 → [달린]’은 ‘닭-’의 겹받침 ‘ㅌ’ 중에서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달는]이 되고, 비음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자음 동화)가 일어나 [달린]으로 발음된다. ㉙의 ‘발야구 → [발랴구]’는 ‘발+야구’의 합성어로,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의 음운에 상관없이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될 때에는 ‘ㄴ’이 첨가되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 [발랴구]가 되고,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발랴구]가 된다. ㉗과 ㉙에서는 공통적으로 ‘ㄴ’이 첨가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만 ㉘에서는 첨가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다.

오답 풀이 ①, ④ ㉗은 3회, ㉘와 ㉙은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③ ㉗은 자음군 단순화로 1개의 음운이 줄었지만 사잇소리 현상으로 1개의 음운이 늘어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없다. ㉘은 자음군 단순화로 1개의 음운이 줄었고, ㉙은 사잇소리 현상으로 1개의 음운이 늘었다.

⑤ ㉗과 ㉙ 모두 사잇소리 현상으로 ‘ㄴ’이 첨가되었다.

04 음운의 변동

㉚의 ‘뽕+느라 → [뽕느라]’는 받침 ‘ㅂ’이 ‘ㄴ’ 앞에서 [ㅁ]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는 자음 동화(비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㉗의 ‘뜰+고 → [뜰꼬]’는 받침 ‘ㄷ’ 뒤에 연결되는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㉘의 ‘놓+고 → [노꼬]’는 ‘ㅎ’과 ‘ㄱ’이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ㅋ]으로 발음되는 자음 축약이 일어난다.

③ ㉙의 ‘홀네’는 겹받침 ‘ㅌ’ 중 [ㄹ]만 발음되어 [홀네]가 되고, 다시 ‘ㄴ’이 앞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이 되는 유음화(자음 동화)가 일어나 [홀레]가 된다. 따라서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ㄹ’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㉚의 ‘넉더라’는 받침 ‘ㅌ’ 중 [ㄹ]만 발음되어 [넉더라]가 되고, 다시 뒤에 연결되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넉더라]가 된다.

기출로 3년 익히기 (2) 단어

본문 104~109쪽

01 ② 02 ① 03 ③ 04 ① 05 ③ 06 ③ 07 ③
08 ① 09 ①

01 단어의 형성

ㄷ의 ‘사범’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든 것은 이 대화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 ‘인강’의 단어 형성 방법과 동일하다. 그리고 ㄹ의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든 것은 이 대화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넌목, 노림수, 섞여찌개’ 등의 단어 형성 방법과 동일하다.

오답 풀이 ㄱ. '샘'은 '선생님'을 줄여서 만든 말로, '선생님'은 명사 '선생'과 접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ㄱ은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 대화와는 관련이 없다.

ㄴ. '개살구'는 접사 '개-'와 명사 '살구'가 결합한 파생어로 이 대화와는 관련이 없다.

ㄹ. 명사 '점잔'이 '점잖다'라는 형용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이 대화와는 관련이 없다.

02 단어의 형성

①의 '잘못'은 '잘하지 못하여 그릇되게 한 일 또는 옳지 못하게 한 일'을 의미하는 명사로, 부사 '잘'과 부사 '못'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이다. 따라서 ①의 '잘못'은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② '새것'은 관형사 '새'와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③ '요사이'는 관형사 '요'와 명사 '사이'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④ '오늘날'은 명사 '오늘'과 명사 '날'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⑤ '갈림길'은 동사 '갈리다'의 활용형인 '갈림'과 명사 '길'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03 단어의 형성

자료에서 밑줄 친 '은/는', '들-/들-', '-았-/-'은 다른 말과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이다. 그리고 조사 '은/는'은 결합하는 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은', 결합하는 말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는'으로 그 형태가 바뀐다. 동사의 어간 '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라', '-었-' 등과 결합할 때는 '들-'로 형태가 바뀐다. 선어말 어미 '-았-/-'은 '보았다', '부었다'와 같이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

오답 풀이 ① '은/는', '들-/들-', '-았-/-'은 모두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그러나 '은/는'은 조사로 단어에 해당하지만, 동사의 어간 '들-/들-'과 어미 '-았-/-'은 단어가 아니다.

②, ⑤ '은/는', '-았-/-'은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지만, '들-/들-'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④ '은/는', '들-/들-', '-았-/-'은 모두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 그러나 '은/는', '-았-/-'은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지만 '들-/들-'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04 품사

①의 '군데'는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로, 자립 명사와 달리 관형어 없이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자립 명사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음식이나 물건을 그릇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③ '덩어리'는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자립 명사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④ '숟가락'은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를 의미하는 자립 명사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밥 따위의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⑤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을 의미하는 자립 명사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05 품사

③에서 '가는'의 '-는'은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연결 어미가 아니라 용언 '가다'를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전성 어미(㉔)이다.

오답 풀이 ①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감탄형 어미로,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종결 어미이다.

② '오시지'의 '-지'는 어떤 사실을 물을 때 쓰이는 의문형 어미로,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종결 어미이다.

④ '먹었으나'의 '-으나'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연결 어미이다.

⑤ '운동하기'의 '-기'는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명사형 어미로,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전성 어미이다.

06 품사

〈보기 1〉의 설명에서 ㉑의 '달리기'는 용언의 어간 '달리-'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다. 〈보기 2〉에서 ㉒의 '춤'도 '추-'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현란한'의 수식을 받고 있고, ㉓의 '걸음'도 '걷-'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학생들의'의 수식을 받고 있다.

오답 풀이 ㉔ '웃음'은 '웃-'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멋쩍게'의 수식을 받고 있다.

㉕ '그림'은 '그리-'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잘'의 수식을 받고 있다.

07 단어의 의미

이 글의 3문단을 통해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 곧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구'는 '악기'의 상의어이고 '악기'는 '북'의 상의어이므로, '악기'는 '기구'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북'은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상의어인 '타악기'는 하의어인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하의어인 '북'은 상의어인 '타악기'의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뜻으로 볼 때 [두드림]이라는 의미 자질을 이어받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공하의어는 하나의 상의어에 대하여 같은 계층에 있는 하의어를 의미한다. '기구' > 타악기 > 심벌즈의 상하 관계를 고려할 때 '타악기'와 '심벌즈'는 같은 계층에 있지 않으므로 '타악기'와 '심벌즈'는 '기구'의 공하의어가 아니다.

⑤ 3문단에서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현악기'와 '관악기'는 '기구'의 하의어에 해당하므로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단어의 의미

이 글의 2문단을 볼 때, ㉠의 '비양립 관계'는 '구기'의 공하의어인 '촉구', '야구', '농구'처럼 같은 계층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글의 4문단을 볼 때, ㉡의 '상보적 반의 관계'는 '핑'의 공하의어인 '장끼'와 '까투리'처럼 공하의어가 돌뿐이고, A가 아닌 것은 곧 B이고 그 역도 성립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극'의 공하의어인 ㉢의 '북극'과 ㉣의 '남극'은 같은 계층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비양립 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극'의 공하의어가 돌뿐이고, '북극'이 아닌 것은 곧 '남극'이고 그 역도 성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보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여름 - ㉡ 겨울은 '계절'의 공하의어인 같은 계층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양립 관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계절'에는 '여름'과 '겨울' 외에도 '봄', '가을'이 있기 때문에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펭귄 - ㉣ 갈매기는 '조류'의 공하의어인 같은 계층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양립 관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조류'에는 '펭귄'과 '갈매기' 외에도 '참새', '비둘기', '부엉이' 등이 있기 때문에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여름 - ㉡ 계절은 '계절'의 하의어에 '여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에 해당한다.

㉢ 개 - ㉣ 갈매기는 '동물'의 공하의어인 같은 계층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양립 관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물'에는 '개'와 '갈매기' 외에도 '펭귄', '고양이', '도마뱀' 등이 있기 때문에 상보적 반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09 단어의 의미

㉠에서 ㉡의 '낮다'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의 '낮다'는 '품위, 능력, 품질 따위가 바라는 기준보다 못하거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중심적 의미가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오답 풀이 ㉡ ㉠의 '크다'는 '가능성 따위가 많다'라는 뜻으로 주변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의 '크다'는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라는 뜻으로 주변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 ㉠과 ㉢의 '넓다'는 모두 '너비가 크다'라는 뜻으로 주변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 ㉠의 '좁다'는 모두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주변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 ㉠의 '작다'는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주변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의 '작다'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라는 뜻으로 중심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알아두기 반의 관계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를 반의 관계(反義關係)라고 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反義語)라고 한다. 반의어인 '해와 달', '낮과 밤'처럼 실제로 세상의 많은 사물들이 짝을 이루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세상만사를 대립되는 짝으로 연결하여 파악하려는 경향에 따라 만들어진 어지기도 한다.

기출로 개념 익히기 (3) 문장

본문 114~11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1 문장의 성분과 짜임

㉡에는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절(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과 '값이 비싸다'라는 서술절(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에는 '피곤해하던'이라는 관형절과 '엄마가 모르게'라는 부사절(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안겨 있을 뿐 서술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에는 '따뜻한'이라는 관형절(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포함되어 있고, ㉢에는 '내가 만난'이라는 관형절이 포함되어 있다.

㉢ ㉢에는 '봄이 빨리 오기'라는 명사절(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 '빨리'가 포함되어 있고, ㉣에는 서술절 '마음이 정말 착하다' 속에 부사어 '정말'이 포함되어 있다.

㉣ ㉠의 '따뜻한'이라는 관형절에는 '봄'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의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절에는 '배추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 ㉢에는 '엄마가 모르게'라는 부사절(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포함되어 있고, ㉡에는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절(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02 문장의 성분과 짜임

'정수가 은희와 결혼했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나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안긴문장의 주어 '정수가'가 생략되지 않았으므로 ㉣은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동생이 숙제를 한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형이 동생을 불렀다.'라는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 '동생'이 생략된 경우이다.

㉡ '형이 대학생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동생은 형과 여행을 했다.'라는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 '형'이 생략된 경우이다.

㉢ '경희가 버스에 탔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영수가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 '경희'가 생략된 경우이다.

㉤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그는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라는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 '화가'가 생략된 경우이다.

03 문장의 성분과 짜임

㉠의 두 예문에서는 주성분 외에 각각 '산으로'와 '가족으로'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산으로'와 '가족으로'는 서술어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재료나 성분으로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되다'의 문형 정보로 '【...으로】'를 추출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두 예문에서 각각 '아무렇지 않게'와 '자연스럽게'를 생략하여도 문장들이 어색해지지 않으므로 '넘어가다'의 문형 정보로 '【-게】'를 추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예문에서는 주성분 외에 각각 '속임수'와 '피에'를 생략하면 문장들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넘어가다'의 문형 정보로는 '【...에】'를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두 예문에서 각각 ‘웃 때문에’와 ‘한밤중에’를 생략하여도 문장들이 어색해지지 않으므로 ‘다투다’의 문형 정보로 ‘【…에】’를 추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예문에서는 주성분 외에 각각 ‘언니와’와 ‘누군가와’를 생략하면 문장들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다투다’의 문형 정보로는 ‘【…와/과】’를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두 예문에서 각각 ‘사은품으로’와 ‘부록으로’를 생략하여도 문장들이 어색해지지 않으므로 ‘달리다’의 문형 정보로 ‘【…으로】’를 추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예문에서는 주성분 외에 각각 ‘가방에’와 ‘그 책에’를 생략하면 문장들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달리다’의 문형 정보로는 ‘【…에】’를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두 예문에서 각각 ‘깨끗하게’와 ‘허영게’를 생략하여도 문장들이 어색해지지 않으므로 ‘빠지다’의 문형 정보로 ‘【-게】’를 추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예문에서는 주성분 외에 각각 ‘옷에서’와 ‘침바지에서’를 생략하면 문장들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빠지다’의 문형 정보로는 ‘【…에서】’를 추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문법 요소

㉠의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에서 ‘왔겠다’는 ‘오-+-왔-+-겠-+-다’로 분석이 되는데, 이 중 ‘-왔-’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그리고 ㉠의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에서 ‘지금’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따라서 ㉠의 두 문장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의 사건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의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에서 ‘갔다’의 선어말 어미 ‘-았-’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인 것으로 볼 때,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의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이 쓰인 것으로 볼 때, 관형사형 어미 ‘-르’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의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에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 ‘내년에’가 쓰인 것으로 볼 때, 선어말 어미 ‘-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의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 ‘오늘’과 함께 ‘작다’라는 형용사가 쓰인 것으로 볼 때,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문법 요소

〈보기〉의 첫 번째 예시에서 직접 인용된 발화는 간접 인용에서는 어제 말한 것이므로 시간 부사 ‘내일’을 ‘오늘’로 바꾼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혹은 어머니)에게 한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므로 ‘계십시오’라는 높임 표현을 쓴 것이지만 이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나(제)’가 자신을 높일 수 없으므로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계시다’를 ‘있다’로 바꾸고, 명령문의 어미 또한 ‘-ㅂ시오’가 아닌 ‘-(으)라’를 붙여 ‘있으라’로 바꾼다. 또 직접 인용 조사 ‘라고’가 아닌 간접 인용 조사 ‘고’를 붙여 ‘있으라고’로 바꾼다(㉡). 〈보기〉의 두 번째 예시에서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언니’가 말한 것이므로 간접 인용에서는 대명사 ‘나’를 ‘자기’로 바꾼다(㉢). 그리고 직접 인용의 명령형 ‘남겨라’는 간접 인용에서는 어간 ‘남기-’에

‘-(으)라’가 붙어야 하므로 ‘남기라’로 바꾼다. 마찬가지로 인용 조사 ‘라고’가 아닌 ‘고’를 붙여 ‘남기라고’로 바꾼다(㉣).

06 문법 요소

‘말씀’은 ‘경준’이 높여야 할 대상인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므로 ‘있었니’가 아니라 ‘있으셨니’라고 간접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의 주체는 화자(영희)의 친구인 ‘경준’이므로 ㉠을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③ ㉢은 ‘경준’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을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는 동사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④ ㉣은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므로, ㉣은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인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⑤ ㉤의 주체는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므로, ㉤을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07 문법 요소

⑤의 ㉠에서 ‘안겠다’는 주어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도록 시키는 것이므로 사동사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⑤의 ㉡에서 ‘안겠다’는 주어 ‘아기 꿈이’ ‘어미’에 의해서 포근히 안기는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동사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의 ‘풀렸다’와 ㉡의 ‘풀렸다’ 모두 피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② ㉢의 ‘업혔다’는 피동사로 쓰인 경우이고, ㉣의 ‘업혔다’는 사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③ ㉤의 ‘말렸다’는 사동사로 쓰인 경우이고, ㉥의 ‘말렸다’는 ‘말리다’가 기본형으로 사동사나 피동사로 쓰인 경우가 아니다.

④ ㉦의 ‘눅였다’와 ㉧의 ‘눅였다’ 모두 사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기출로 개념 익히기 (4) 당화

본문 119쪽

01 ⑤ 02 ⑤

01 담화의 요소와 기능

〈보기〉의 담화는 엄마와 아들 ‘영수’의 대화이기 때문에 ㉠의 ‘누나’는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지만 ㉡의 ‘영수’는 엄마가 하는 말의 청자이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청자인 ‘영수’의 관점에서 화자인 ‘엄마’가 자신을 가리킨 지칭어이고, ㉡도 청자인 ‘영수’의 관점에서 화자인 ‘엄마’가 영수의 누나를 가리킨 지칭어이다.

② ㉢은 화자인 ‘엄마’, ㉣은 청자인 ‘영수’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둘 다 현재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③ ㉤과 ㉥은 모두 옷 가게 광고판을 가리킨다.

④ ㉦과 ㉧은 모두 옷 가게 광고판에 적힌, 할인을 하는 날로 ‘2015년 12월 30일’을 가리킨다.

02 담화의 요소와 기능

⑤의 '어디 보자.'는 청자(B)와 관계없이 화자(A)가 혼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화자(A)는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라는 의문문으로 청자(B)에게 잠깐 기다리자는 요청을 하고 있다.
 ② 화자(A)는 '한번 보세.'라는 청유문으로 청자(B)에게 다친 곳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③ 화자(A)는 '먼저 좀 내입시다.'라는 청유문으로 청자(B)에게 자신이 내릴 수 있게 비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④ 화자(A)는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의문문으로 청자(B)에게 모자를 벗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기출로 익히기 (5) 국어의 규범

본문 123~125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5 ⑤

01 한글 맞춤법

'웃소매'는 어근 '웃'과 어근 '소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이고, '밥알'은 어근 '밥'과 어근 '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웃소매'와 '밥알'은 각각 '온소매', '바발'처럼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었기 때문에 ㉔의 예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이파리'와 '얼음'은 모두 파생어로, '이파리'는 소리대로 적은 예에 해당하지만 '얼음'은 '어름'처럼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에 해당한다.
 ② '마소'와 '낫잠'은 모두 합성어로, '마소'는 소리대로 적은 예에 해당하지만 '낫잠'은 '날잠'처럼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에 해당한다.
 ③ '웃음'과 '바가지'는 모두 파생어로, '웃음'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에 해당하지만 '박가지'는 '박아지'처럼 어법에 맞도록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예에 해당한다.
 ⑤ '꿈'은 파생어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 예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랑니'는 합성어로, '사랑니'는 '사랑이'처럼 어법에 맞도록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예에 해당한다.

02 한글 맞춤법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㉔의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이고, ㉕의 '일찍이'도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이다.

- 오답 풀이** ① ㉔의 '굳이'는 어간 '굳-'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이고,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하다'가 붙는 어간 '급-'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로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㉔의 '같이'는 어간 '갈-'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이고, '방긋이 웃다'의 '방긋이'는 부사 '방긋'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로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㉔의 '꾸준히'는 '-하다'가 붙는 어간 '꾸준-'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이고, '많이 먹다'의 '많이'는 어간 '많-'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로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㉔의 '깨끗이'는 '-하다'가 붙는 어간 '깨끗-'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이고, '깊이 파다'의 '깊이'는 어간 '깊-'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로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03 한글 맞춤법

㉔의 '살아가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살아가다'로 붙여 쓴다. 그리고 ㉔의 '받아가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고, '-아'를 '-아서'(받아서 가다)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본용언+본용언' 구성이다. 따라서 ㉔의 '받아가다'는 '받아 가다'로 띄어 쓴다. 마지막으로 ㉔의 '달아가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고, '-아'를 '-아서'(달아서 가다)로 바꿔 쓸 수 없으므로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따라서 ㉔의 '달아가다'는 '달아 가다'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달아가다'로 붙여 씀도 허용된다.

04 표준 발음

⑤에서 '닭+하고'는 겹받침 'ㄷ'이 자음 앞에 온 경우이므로, ㉔에 따라 '닭'은 [닥]으로 발음해야 한다. 그리고 '닭하고'는 [ㄱ]이 'ㅎ'과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㉔에 따라 [다카고]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여덟+이'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㉔에 따라 겹받침의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여덟비]로 발음해야 한다.
 ② '뫼+을'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㉔에 따라 발음해야 하는데 'ㅅ'은 [ㅍ]으로 발음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목썸]로 발음해야 한다.
 ③ '흙+만'은 겹받침 'ㄷ'이 자음 앞에 온 경우이므로, ㉔에 따라 '흙'은 [흑]으로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흙만'은 [ㄱ]이 'ㄹ' 앞에 온 경우이므로 ㉔에 따라 [흑만]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값+까지'는 겹받침 'ㅍ'이 자음 앞에 온 경우이므로, ㉔에 따라 '값까지'는 [갑까지]로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값까지'는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연결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㉔는 적용받지 않는다.

05 표준 발음

⑤의 '엷지만'은 어간 받침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㉔에 따라 [언찌만]으로 발음해야 한다. 그리고 ⑤의 '얇을수록'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 뒤에 연결되는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㉔에 따라 [안줄수록]으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품을 적에'를 [푸물찌게]로 발음하는 것은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㉔에 따른 것이고, '삼고'를 [삼꼬]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㉔에 따른 것이다.
 ② '넉거든'을 [넉꺼든]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㉔에 따른 것이고, '얇을지라도'를 [얇블찌라도]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㉔에 따른 것이다.
 ③ '신것네요'를 [신:켄네요]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의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㉔에 따른 것이고, '밭지도'를 [밭:찌도]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㉔에 따른 것이다.

④ '비웃을지언정'을 [비웃을찌언정]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㉔에 따른 것이고, '출던'을 [출뎌]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㉔에 따른 것이다.

기출로 익히기 (6) 국어의 역사 본문 128~129쪽

01 ⑤ 02 ③ 03 ①

01 중세 국어의 특징

'미퓻'의 현대어 풀이가 '밑에'인 것으로 볼 때, '미퓻'는 '밑'이라는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명사 '밑'에 앞말이 최초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가 결합된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현대어 풀이 '하늘의'로 볼 때, '하늘'은 무정 명사 '하늘'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된 것을 알 수 있다.
- ② 현대어 풀이 '청하십시오'로 볼 때, '請하ㅅ부쇼셔'에는 객체인 목적어 '부터'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ㅅ'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 ③ 현대어 풀이 '알아보겠습니까?'로 볼 때, '아라보리소스니잇가'에는 상대편에게 '예',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인 '니잇가'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 ④ 현대어 풀이 '내가'로 볼 때, '내'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인 '나'와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된 것을 알 수 있다.

02 중세 국어의 특징

㉔에서 15세기 국어는 중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로 보아 '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중성인 'ㅅ'은 'ㄷ'과 다르게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㉔에서는 15세기 국어에 자음 'ㄷ'과 'ㅅ'이 존재하였다고 있는데, '수·비'에는 자음 'ㅅ'이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㉔의 초성에 오는 'ㅃ'은 'ㅂ'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ㅃ·들'의 'ㅃ'은 두 개의 자음이 모두 발음된 것을 알 수 있다.
- ④ ㉔의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방점이 두 개 있는 '히'와 방점이 한 개 있는 '여'는 성조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㉔의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뿌·메'는 '뽕+에'를 연철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3 중세 국어의 특징

'나랏+을'은 'ㅎ' 중성 체언 '나랏'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이 뒤따르기 때문에,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어 '나랏할'이라고 쓰면 된다(㉔). '깊+ㅅ'은 'ㅎ' 중성 체언 '깊'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이 뒤따르기 때문에, 'ㅎ'은 적지 않고 '깊'이라고 쓰면 된다(㉔). '얹+과'는 'ㅎ' 중성 체언 '얹'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 '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ㅎ'은 뒤따르는 'ㄱ'과 어울려 'ㅋ'으로 나타내 '안과'라고 쓰면 된다(㉔).

실전 1회 본문 130~132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⑤ 05 ④

01 [음운] 음운의 변동

㉔의 '서서'는 '서-'와 '-어서'가 만나 'ㅅ' 모음이 이어서 소리 나면서 중복될 때 한 모음이 탈락한 모습 탈락에 해당한다. 두 모음이 이어서 소리 내면 자연스럽게 못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음 탈락이 일어나게 된다.

- 오답 풀이** ① ㉔은 '달님'이라고 표기하고 [달림]으로 발음한다. 이는 'ㄴ'과 'ㄹ'이 충돌하여 'ㄴ'이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㉔은 '술'의 끝 자음인 'ㄹ'이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으로 탈락된 자음 탈락의 예이다.
- ③ ㉔은 모음 'ㅣ'와 'ㅏ'가 만나 'ㅑ'로 축약된 경우이다.
- ⑤ ㉔은 받침 'ㄱ'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인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 예이다.

02 [담화] 담화의 요소와 기능

④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 상을 받아서 느끼는 기쁨을 드러낸 표현이므로 '-답니다'가 종결 어미로 쓰인 예에 해당하며, 인용 발화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③, ⑤의 '-답니다'는 '-다고 합니다'의 줄임말로,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

- 오답 풀이** ① 남편이 일기 예보 방송을 듣고 알게 된 정보를 아내에게 전하는 말이므로 인용 발화이다.
- ② 자신의 어렸을 적 모습을 어머니께 전해 들은 이야기를 청자에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인용 발화이다.
- ③ 민수가 기뻐했다고 말한 내용을 민수의 친구가 선생님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인용 발화이다.
- ⑤ 할머니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들은 내용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인용 발화이다.

03 [문장] 문장의 성분과 짜임

'요구하다'는 '(...에/에게 ...을/를)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청하다'라는 의미로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예문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주어)', '가해자에게(부사어)', '보상을(목적어)'이 서술어 '요구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임을 알 수 있다. '강력히'는 서술어인 '요구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되므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따라서 '요구하다'는 세 자리 서술어의 용례인 ㉔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② '선수(가)(주어) 힘차게(부사어) 뛰어올라(부사어) 공을(목적어) 찼다(서술어)'라는 문장에서는 '선수가', '공을', '찼다'가 필수 성분이다. 따라서 '차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 ③ '그녀(가)(주어) 드디어(부사어) 올림픽에(부사어) 참가했다(서술어)'라는 문장에서는 '그녀가', '올림픽에', '참가했다'가 필수 성분이다. 따라서 '참가하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올림

픽에는 부사어이지만 생략할 경우 그녀가 어디에 참가했는지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므로 필수 성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④ '그는(주어) 결혼을(목적어) 봄으로(부사어) 미루었다(서술어)'라는 문장에서는 '그는', '결혼을', '봄으로', '미루었다' 모두 필수 성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루었다'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⑤ '주인이(주어) 자신의(관형어) 개에게(부사어) 먹이를(목적어) 배부르게(부사어) 주었다(서술어)'라는 문장에서는 '주인이', '개에게', '먹이를', '주었다'가 필수 성분이다. 따라서 '주다'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04 [단어] 단어의 형식

㉑의 '잡'과 ㉒의 '웃음'은 각각 '깊은'과 '큰'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보아 명사임을 알 수 있다. ㉓의 '잡'과 ㉔의 '웃음'은 각각 '오래'와 '크게'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㉑의 '잡'과 ㉔의 '웃음', ㉒의 '잡'과 ㉓의 '웃음'이 각각 같은 품사라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㉑의 '잡'과 ㉒의 '웃음', ㉓의 '잡'과 ㉔의 '웃음'이 각각 같은 품사이다.

●오답 풀이 ① ㉑에서 '잡'은 관형어 '깊은'이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사 '자다'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따라서 '잡'에 붙어 있는 '-ㅁ'은 접미사에 해당한다.

② ㉒의 '잡'은 부사어 '오래'가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따라서 ㉒의 '잡'은 주어 '철수'의 행동을 서술하는 기능을 하고 이때 '-ㅁ'은 명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③ ㉓의 '웃음'은 관형어 '큰'이 수식하고 있으므로 동사 '웃다'에서 파생된 명사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붙은 '-음'은 접미사에 해당한다.

④ ㉔의 '웃음'은 부사어 '크게'가 수식하고 있으므로 동사 '웃다'가 명사형으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동사 '웃음'에 붙은 '-음'은 명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05 [국어의 규범] 로마자 표기법

(나)를 통해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음운 변동이 적용된 표준 발음법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전음법을 채택하여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한다. 따라서 '종로'도 비음화가 적용된 '[종노]'가 표준 발음이므로 'Jongno'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나)에서 '백로'는 비음화, '알약'은 유음화, '해돋이'는 구개음화, '종고'는 자음 축약이 각각 적용된 표준 발음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전음법을 채택하여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로'는, 'ㅇ' 뒤에 오는 유음 'ㄹ'은 비음 'ㄴ'으로 발음된다는 표준 발음법의 비음화 규정이 적용되어 '[종노]'로 발음되기 때문에 'Jongno'로 표기해야 한다.

알아두기 국어의 모음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유의점

[붙임 1] 'ㄴ'은 'l'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예 광희문[광히문] : Gwanghui 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예 '눈:[눈]'과 '눈[眼]'은 모두 'nun'으로 표기함

01 [국어의 규범] 표준 발음

④의 '아랫니'는 '아래+ㅅ+니'로 사이시옷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㉑이 아닌 ㉒에 따라 [아래니]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햇살'은 '해+ㅅ+살'로 'ㅅ'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오는 경우이므로, ㉑에 따라 [해쌀]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햇쌀]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② '콧등'은 '코+ㅅ+등'으로 'ㄷ'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오는 경우이므로, ㉑에 따라 [코똥]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콧똥]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③ '뱃머리'는 '배+ㅅ+머리'로 사이시옷 뒤에 'ㄹ'이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㉑에 따라 [뱌머리]로 발음한다.

⑤ '나뭇잎'은 '나무+ㅅ+잎'으로 사이시옷 뒤에 'ㅇ'이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㉑에 따라 [나문닙]으로 발음한다.

알아두기 사잇소리 현상

국어 단어 중에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에는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 사잇소리 현상은 이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규칙을 아직 찾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비슷한 조건인데도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합성 명사도 있기 때문이다.

02 [담화] 담화의 요소와 기능

⑤는 화자가 선 곳에서 길을 잃어 길을 찾기 위해 질문을 하는 발화이다. 문장 유형이 의문문이고 발화의 의도가 질문에 해당하므로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는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이 발화는 친구가 오천 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오천 원을 빌리기 위한 발화이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② 이 발화는 식사가 나오는 시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시킨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식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비난하기 위한 발화이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③ 이 발화는 상대방이 배가 고프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④ 이 발화는 친구가 책을 다 읽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책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청의 의미로 질문하는 것이므로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03 [단어] 품사

㉑과 ㉒ 모두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지만,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그 품사가 달라진다. ㉑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지시 대명사에 해당하지만, ㉒은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수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고, ㉡은 화자에게 가까이 있거나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이므로 품사는 서로 다르지만, 어떤 대상을 지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③ ㉢은 '음식'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지시 관형사이고, ㉣은 '사람'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다.
- ④ ㉤은 앞에서 묻는 말에 대한 부정의 대답으로 사용된 감탄사이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가 되는 대상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며 반드시 체언 뒤에 붙어야 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은 용언 앞에서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거나, 명사와 명사 사이 혹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말로 부사이며, '온다더라'라는 서술어를 수식하여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은 서술어 '나온' 앞에서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의 뜻을 더하는 부사이다.

알아두기 지시 대명사(指示代名詞)

근칭 대명사 (近稱代名詞)	말하는 사람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물, 방향, 처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 이분, 이것, 여기
중칭 대명사 (中稱代名詞)	그리 멀지 아니한 곳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 그이, 그것
원칭 대명사 (遠稱代名詞)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물건, 장소, 방향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 ㉣ 저이, 저것, 저기
미지칭 대명사 (未知稱代名詞)	모르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 누구, 아무, 아무개, 어느, 무엇
부정칭 대명사 (不定稱代名詞)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 ㉥ 아무, 아무개

04 [문장] 문장의 성분과 짜임

㉠ '그가 정당했음'의 '-음'과 ㉡ '집에 가기에'의 '-기'는 모두 명사형 어미로 안긴문장을 명사절로 만들어 주는 표지로 사용된다. 따라서 ㉠의 '집에 가기에'는 부사절이 아닌 명사절에 해당하고, 부사격 조사 '에'와 함께 쓰여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은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그가 정당했음'이라는 안긴문장이 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명사절을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 ② '그가 정당했다.'라는 안긴문장이 명사형 어미 '-음'을 표지로 사용하여 '그가 정당했음'이라는 명사절이 되었다.
- ④ '집에 가다.'라는 안긴문장이 명사형 어미 '-기'를 표지로 사용하여 '집에 가기에'라는 명사절이 되었다.
- ⑤ ㉠에서 '그가 정당했음'은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고, ㉡에서 '집에 가기에'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05 [국어의 역사] 중세 국어의 특징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2인칭인 '네'이므로, ㉠에는 '-나'라는 특수한 의문형 종결 어미를 결합한 '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문장은 의문사 '어디'가 있고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므로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는 '-뇨'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결합한 '잇느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째 문장은 의문사가 없고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므로 판정 의문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는 '-가'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결합한 '종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실전 3회

본문 136~138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② 05 ⑤

01 [음운] 음운과 음운 체계

대개 문장의 끝을 올려 읽으면 의문의 뜻을 나타내고, 내려 읽으면 단순한 진술이거나 명령의 뜻을 나타낸다. 이처럼 억양은 문장의 의미를 변별해 주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비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불'과 '불'은 'ㅂ'과 'ㅂ'는 음운의 차이로 인해 뜻이 전혀 다른 단어가 되었으므로 최소 대립어에 해당한다.
- ② '의자'의 '의'에서 초성에 오는 'ㅇ'은 음가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의자'는 'ㄴ, ㅈ, ㅊ'라는 3개의 분절 음운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③ '[눈]'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의미하고, '[눈]'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소리의 길이도 음운에 해당한다.
- ④ <보기>에서 '달'은 'ㄷ, ㅌ, ㄹ'로 2개의 자음과 1개의 모음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은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므로 분절 음운이다.

02 [담화] 담화의 요소와 기능

형이 사용한 지시어 '이'는 객관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형이 자기 자신을 '이 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동생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며, 이는 동생에 대한 형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즉 형이 사용한 '이'는 화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상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지시어이다.

- 오답 풀이** ① 가리키는 대상이 화자와 청자에게서 모두 멀리 떨어진 경우이므로 지시어 '저'로 표현해야 한다.
- ② 가리키는 대상이 화자와 멀고, 청자와는 가까운 경우이므로 지시어 '그'로 표현해야 한다.
- ③ 가리키는 대상인 '철호의 형'은 남자와 여자의 건너편 도로에 있으므로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어 '저'로 표현해야 한다.
- ④ 화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이므로 지시어 '이'로 표현해야 한다.

03 [국어의 규범] 한글 맞춤법

'늘어나다'는 '늘다'와 '나다'가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된 것으로, ㉠에서는 앞말 '늘다'의 '살림이 넉넉해지다.'라는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제15항의 붙임 1 규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의 '가시오'에서 어미 '-오'는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이므로 붙임 2 규정에 따라 '오'로 소리가 나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한다.
- ② ㉡의 '드러나다'는 본뜻에서 멀어진 용언으로 '들다'와 '나다'처럼 분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5항 붙임 1 규정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야 한다.
- ③ ㉢의 '신고'는 '신-+고'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보기 1>의 제15항 규정과 관련이 있다.
- ⑤ ㉤의 '책이오'에서 '이오'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으므로 붙임 3 규정에 따라 '이오'로 그대로 적어야 한다.

04 [단어] 단어의 의미

<보기>에서 접미사 ‘-답다’는 문장의 주어와 ‘-답다’ 바로 앞의 명사가 지닌 특성이 동일하거나 비슷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주어가 학생인 ‘우리 반 반장’이고 ‘-답다’ 앞에 쓰인 명사는 ‘어른’이므로 특성이 같지 않다. 따라서 접미사 ‘-답다’가 아닌 ‘-스럽다’를 사용하여 ‘어른스럽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문장의 주어인 ‘어린이’와 ‘-답다’ 앞에 오는 명사인 ‘아이’의 특성이 동일하므로 ‘-답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문장의 주어인 ‘아들’은 ‘여성’이라는 명사의 특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서로 같지는 않으므로 ‘-스럽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주어인 ‘경영자’와 ‘-답다’ 앞에 오는 명사인 ‘지도자’의 특성이 거의 비슷하므로 ‘-답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주어인 ‘그녀’는 여자로, ‘남성’이라는 명사의 성질이나 특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서로 같지는 않으므로 ‘-스럽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알아두기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

-거리다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의 의미를 더하고 동사를 만들 예 꾸틀거리다, 머뭇거리다
-롭다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려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들 예 새롭다, 평화롭다, 자유롭다
-하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 예 공부하다, 건강하다, 구경하다
-껏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닿는 데까지’의 뜻을 더하고 부사를 만들 예 마음껏, 정성껏, 힘껏
-히	형용사의 어근이나 ‘-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되는 어근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들 예 조용히, 무사히, 나란히, 영원히

05 [국어의 역사] 중세 국어의 특징

㉨의 ‘말씀’은 현대 국어의 ‘말씀’과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 중세 국어에서의 ‘말씀’은 ‘일반적인 말’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의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달리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유 익훈’에는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다르게 성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번 이오’는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고 있으므로 끊어 적기에 해당하고, ‘니 근’은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으므로 이어 적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는 끊어 적기와 이어 적기가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들:온’은 음성 모음인 ‘ㅡ’와 양성 모음인 ‘ㅗ’가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파괴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15세기에는 ‘드룬’으로 쓰였으나 모음 조화가 파괴되고 끊어 적기가 사용되면서 16세기에는 ‘들온’으로 표기되었다.

④ ‘아:당ㅎ 기’는 현대 국어에서처럼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어 ‘아침하기’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알아두기 성조(聲調)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어를 변별하는 역할을 하는데, 훈민정음에서 성조는 각 음절의 왼쪽에 한 점, 두 점을 찍거나 점을 찍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성조의 종류에는 평성(平聲), 상성(上聲), 거성(去聲), 입성(入聲)의 네 가지가 있다.

실전 4회

본문 139~141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④

01 [음운] 음운의 변동

(바)의 ‘만날 시간[만날 씨간]’은 관형사형 어미 ‘-르’ 뒤에 연결되는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고, (사)의 ‘노랠 불러[노랠 불러]’는 목적격 조사 ‘를’의 받침 ‘ㄹ’ 뒤에 오는 ‘ㅂ’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 즉 ‘ㄹ’ 뒤의 된소리되기는 관형사형 어미 ‘-르’이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을 만났을 때 발생하며, 목적어와 서술어가 만났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신고’와 (나)의 ‘안고’는 어간 ‘신-’과 ‘안-’의 받침 ‘ㄴ’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가 되어 각각 [신:꼬], [안:꼬]로 발음한다.

② (다)의 ‘신고’는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의 의미를 가진 체언(명사)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지 않아 [신고]로 발음한다.

③ (나)의 ‘안고’와 (라)의 ‘안기다’는 모두 어간 ‘안-’의 받침 ‘ㄴ’ 뒤에 ‘ㄱ’이 오지만, (나)의 ‘안고[안:꼬]만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피동 접미사 ‘-기-’에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마)의 ‘할수록’과 (바)의 ‘만날 시간’은 모두 관형사형 어미 ‘-르’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가 되어 [ㅅ]으로 발음한다.

02 [문장] 문장의 성분과 짜임

ㄷ은 ‘나는(주어)+어제저녁에(부사어)+라디오를(목적어)+들느라고(서술어)+[나는(주어)]+숙제를(목적어)+못했다(서술어)’의 구조에서 중복된 주어 ‘나는’을 생략한 문장이다. ㄷ은 라디오를 들었기 때문에 숙제를 못했다는 내용으로,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가 되는 관계이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ㄱ은 ‘나는(주어)+열심히(부사어)+공부했다(서술어)’의 구조로, 주술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에 해당한다. ㄴ은 ‘그는(주어)+도서관에서(부사어)+빌린(관형어)+책들(목적어)+읽고 있다(서술어)’의 구조로, 관형어 부분에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는 형태이다. 이 문장은 전체 문장과 ‘그는(주어), 책들(목적어)’이라는 단어가 중복되기 때문에 두 단어가 생략된 채로 전체 문장 속에 안겨 있다. 따라서 ㄴ은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ㄷ은 ‘나는 어제저녁에 라디오를 들었다.’라는 문장과 ‘나는 숙제를 못했다.’라는 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으며 이어져 있는 이어진문장이다.

② ㄴ에서는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라는 문장이 안기면서 중복되는 주어 ‘그는’과 목적어 ‘책들’이 생략되었다.

④ ㄷ에서는 문장이 이어지면서 앞 문장과 뒤 문장에서 중복되는 주어인 ‘나는’이 생략되었다.

⑤ ㄱ에서 ‘열심히’는 ‘공부했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ㄴ에서 ‘그는 도서관에서 빌린’은 ‘책’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03 [단어] 단어의 형성

㉠의 ‘작은형’은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을 의미하는 합성어이다. 이를 서술형으로 풀어 썼을 때의 ‘형이 작다.’는 형이 키나 체구가 작음을 의미하므로 ‘작은형’과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합성어는 서술형으로 풀어 쓰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합성어인 '뜯어먹어서'는 뜯어쓰기를 하지 않는 반면, 구에 해당하는 '뜯어 먹었다.'는 뜯어쓰기를 하고 있다.

② ㉠에서 구에 해당하는 '뜯어 먹었다.'는 '뜯다'와 '먹다'의 의미가 그대로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는 반면, 합성어인 '뜯어먹어서'는 '남의 재물 따위를 즐라서 얻거나 억지로 빼앗아 가지다.'라는 의미로 변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에서 '작은 그 형'은 '작은'과 '형' 사이에 지시어 '그'가 들어간 경우로, 이는 두 어근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에서 합성어인 '돌아가셔서'는 두 어근 사이를 이어서 발음해야 하는 반면, 구에 해당하는 '돌아 가는'은 두 단어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지를 두어 발음해야 한다.

04 [국어의 규범] 한글 맞춤법

'깨뜨려 버렸다'에서 '깨뜨려'는 본용언, '버렸다'는 보조 용언이다. <보기>로 제시된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띄어 써야 하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오답 풀이 ① '읽어볼 만하다'는 '읽어 볼 만하다'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이므로 앞의 보조 용언만 본 용언에 붙여 쓸 수 있으며, '읽어볼만하다'로는 쓸 수 없다.

② '떠내려가 버렸다'는 '떠내려가다'라는 합성 동사 다음에 '버렸다'라는 보조 용언이 온 경우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③ '듯도 하다'는 보조 용언 '듯하다'의 중간에 조사 '도'가 들어간 경우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먹어도 보았다'는 '먹어'라는 동사에 조사 '도'가 붙은 경우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알아두기 한글 맞춤법 제47항의 예

원칙	허용
비가 올 듯하다. 일이 될 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그 일은 할 만하다.	비가 올듯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척한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그 일은 할만하다.

05 [국어의 역사] 중세 국어의 특징

㉠ '아랫'의 현대어 풀이를 찾아보면 '지난날의'이며, 이는 '지나온 과거의 날의 또는 그런 날의 행적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아래'는 '어떤 기준보다 낮은 위치'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이는 의미의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의미가 이동한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의 'ㅣ'는 현대 국어에서의 '가'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주격 조사이다.

② ㉠의 '돌아보내샤는'은 끊어 적기가, ㉡의 '도라오리랴'는 이어 적기가 사용되고 있다.

③ ㉡의 '사람 ㄱ티'는 'ㄷ, ㅌ'이 'ㅣ'모음과 결합하여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⑤ ㉡의 '너기시니'는 현대 국어에서 '여기시니'로 표기하는데, '여기시니'는 두음 법칙을 지켜서 표기한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너기시니'로 표기된 중세 국어에서 두음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실전 5회

본문 142~144쪽

01 ④ 02 ② 03 ① 04 ⑤ 05 ③

01 [음운] 음운의 변동

'한여름'의 표준 발음은 [한너름]이다. 이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너, 뇨, 뉴]로 발음한다는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제7장 제29항에 따른 것으로, 음운의 첨가 현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ㄹ의 질문은 동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보기 2>를 통해 답변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미달이'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미달-+-이'가 되므로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마다지]로 발음해야 한다.

② '발이랑'은 '발'과 '이랑'의 합성어로, 이때 '이랑'은 조사나 접미사가 아닌 명사로서 실질 형태소이다. 따라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고, [발이랑] → [반니랑]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③ '국자'는 [국짜]로, '국물'은 [궁물]로 발음된다. 이는 '국물[궁물]에 받침 'ㄱ'이 'ㅇ'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⑤ '만머느리'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만-(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머느리'가 되므로, 받침 'ㄷ'이 'ㄹ'을 만나며 비음화가 적용되어 [만머느리]로 발음해야 한다.

02 [문장] 문장의 성분과 짜임

ㄷ의 부사어 '한가롭게'는 주어 뒤, 부사어 뒤 등 문장 내에서 다른 위치에 놓여도 어색하지 않으므로 문장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이동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서술어 앞에서만 쓰인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ㄷ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ㄱ에서 쓰인 '삼다'라는 동사는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만듦'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으로'와 같은 형태의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하므로, ㄱ의 부사어 '스승으로'는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 부사어가 된다.

③ ㄱ의 '스승으로'는 명사 '스승'에 조사 '으로'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된 것이고, ㄴ의 '광장에서' 또한 명사 '광장'에 조사 '에서'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된 것이다.

④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다른 부사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ㄹ의 '아주'는 '잘'이라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고, ㄴ의 '다행히도'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ㄱ의 '스승으로'는 '삼았다'를, ㄴ의 '광장에서는'은 '만나기로 했다'를, ㄷ의 '한가롭게'는 '자고 있다'를 수식하고 있다.

03 [단어] 단어의 의미

①의 '있다 - 없다'는 '있다'가 아니면 '없다'이기 때문에 양극단 있고 중간 항이 없는 ㉠ 상보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높다 - 낮다'는 '높다'와 '낮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 단계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진하다 - 후퇴하다'는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전진하다', 뒤로 물러나는 것을 '후퇴하다'라고 하므로 ㉡ 관계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기혼 - 미혼'은 '기혼'이 아니면 '미혼'이기 때문에 ㉠ 상보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불록 - 오목'은 물체가 평평한 상태를 기준으로 도드라지면 '볼록', 들어가면 '오목'이라고 하므로 ㉡ 관계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오다 - 가다'는 화자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까이 오면 '오다', 멀어지면 '가다'라고 하므로 ㉢ 관계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③ '출석하다 - 결석하다'는 '출석하다'가 아니면 '결석하다'이므로 ㉠ 상보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사다 - 팔다'는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돈을 주고 물건을 받으면 '사다', 물건을 주고 돈을 받으면 '팔다'라고 하므로 ㉡ 관계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걸 - 속'은 '걸'이 아니면 '속'이므로 ㉠ 상보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④ '실명 - 가명'은 '실명'이 아니면 '가명'이기 때문에 ㉠ 상보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두껍다 - 얇다'는 '두껍다'와 '얇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므로 ㉢ 단계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춥다 - 덥다'는 '춥다'와 '덥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므로 ㉢ 단계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⑤ '많다 - 적다'는 '많다'와 '적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므로 ㉢ 단계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늘다 - 줄다'는 현재의 길이, 넓이 부피 등을 중심으로 커지면 '늘다', 작아지면 '줄다'라고 하므로 ㉡ 관계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크다 - 작다'는 '크다'와 '작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므로 ㉢ 단계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04 [문장] 문법 요소

(1)에서 사동주는 '영희', 피사동주는 '순희'이고, (3)에서 사동주는 '어머니', 피사동주는 '딸'이다. (2)의 ㄴ에서 사동주는 '할아버지', 피사동주는 '유산'이다. 그런데 (2)의 ㄱ에서 피사동주는 '학생 다섯 명'임이 드러나지만 사동주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하다'처럼 단형 사동이 불가능한 '가다'를 '가게 하다'와 같이 장형 사동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웃기다'와 같이 단형 사동이 가능한 동사 '웃다'도 '웃게 하다'처럼 장형 사동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단형 사동 '남기다'의 장형 사동인 '남게 하다'가 (2)의 ㄴ에서는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단형 사동은 가능하지만 장형 사동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③ (2)의 ㄱ은 피사동주가 '학생 다섯 명(사립)'으로 단형 사동과 장형 사동이 모두 가능하다. 반면 (2)의 ㄴ은 피사동주가 '유산'으로 사람이 아닌 무정물인데, 단형 사동은 가능하고 장형 사동은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피사동주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사동의 형태에 제약을 더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3)의 ㄱ은 어머니가 딸에게 직접 옷을 입혀 주는 상황과 딸이 스스로 옷을 입게 하는 간접적인 상황 모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3)의 ㄴ은 딸이 스스로 옷을 입게 하도록 어머니가 시키는 상황만을 표현할 수 있다.

05 [국어의 규범] 한글 맞춤법

'짹따랗다[짹따라타]'에서 '짹-'은 겹받침 'ㅈ' 중 끝소리 'ㅂ'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 '짹따랗다'는 '제21항-2-(1)'에 따라 '짹따랗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빛깔'은 '빛 + -깔'로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명사 '빛'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② '값작거린다'는 어간 '값작-' + 접미사 '-거리다'로 어간에 자음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④ '말끔한'은 어간 '말-'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⑤ '납작하다'는 어간 '납작'의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알아두기 문장 부호 일람표

.	마침표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씀.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나타낼 때 씀
?	물음표	의문문이나 물음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씀.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렵거나 모르는 내용임을 나타낼 때 씀
!	느낌표	감탄문이나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씀
,	쉼표	어구를 나열하거나 문장의 연결 관계를 나타낼 때 씀. 문장에서 끊어 읽을 부분임을 나타낼 때 씀
·	가운뎃점	둘 이상의 어구를 하나로 묶어서 나타낼 때 씀
:	쌍점	표제나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을 붙일 때 씀.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씀
/	빗금	대비되는 둘 이상의 어구를 묶어서 나타낼 때 씀
“ ”	큰따옴표	대화를 표시하거나 직접 인용한 문장임을 나타낼 때 씀
‘ ’	작은따옴표	마음속으로 한 말이거나 인용문 속의 인용문임을 나타낼 때 씀. 문장 내용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씀
()	소괄호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씀.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낼 때 씀
{ }	중괄호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들을 묶어서 보일 때 씀
[]	대괄호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씀. 원문에 대한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씀
『 』	겹낫표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씀
《 》	겹화살괄호	
「 」	홀낫표	소제목,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등을 나타낼 때 씀
〈 〉	홀화살괄호	
—	줄표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를 나타낼 때 씀.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를 나타낼 때 씀
-	불임표	차례대로 이어지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구를 묶어서 나타낼 때 씀
~	물결표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씀
·	드러냄표	문장 내용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씀
—	밑줄	
○, ×	숨김표	금기어나 비속어 또는 비밀임을 나타낼 때 씀
□	빠짐표	글자가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씀
……	줄임표	할 말을 줄이거나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씀

